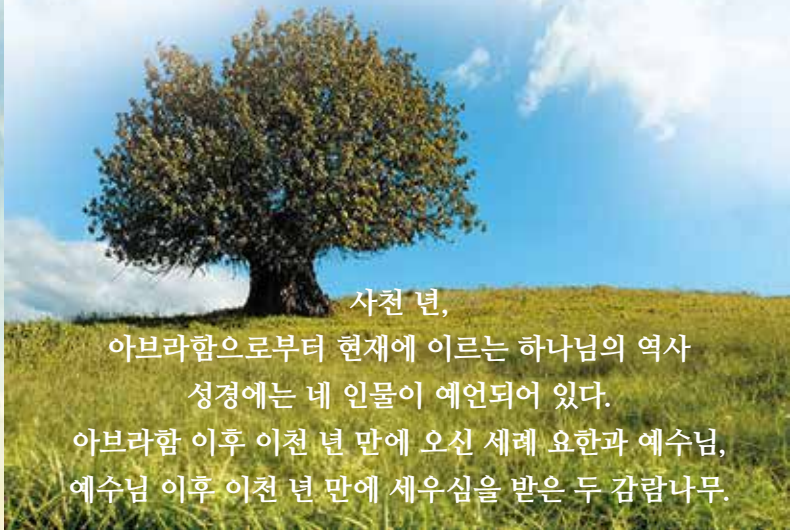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2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1년 12월 22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224-7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2



저자 (1975년)



추수감사절. 알곡성전에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알곡성전은 1987년에 헌당하였다.



어린이 합창단. 흰 성가복과 머리에 금면류관을 상징하는 관은 1981년 이영수 총회장이 이상 중에 보여주심을 받은 대로 만들었다.

Prologue

“책머리에”

인류 역사는 성령과 악령이 투쟁하는 과정이다. 즉 이 양자가 인간을 사이에 두고 배후에서 서로 자기편으로 이끌려고 부단히 겨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신앙 체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자의 숨은 움직임을 혼동하거나 곡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폐단은 의외로 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분간하라고 당부하셨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착각이다. 또 인간은 죽어서 무슨 윤회(輪廻)의 수레바퀴 같은 도정(道程)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도 입증하는 바이다. 기독교에 적극 반기를 든 철학자 러셀 경도, 지금쯤 지하에서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영혼 불멸’을 생리학적 입장에서 부

인했지만, 이 문제를 심령과학이 앞으로 분명히 밝혀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양적(量的)으로 많이 팽창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救靈)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회의 빈축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요컨대 성령의 젓줄이 메말라, 영의 양식에 굶주린 못 심령들의 창자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교계(敎界)에서도 옛날 초대 교회에 내린 성령의 역사를 부러워하여 ‘성령강림제’라고 해서 이를 기념하기도 한다. 지금 이 땅에는 그보다도 더 큰 성령의 은총이 내리고 있는데—여기서도 우리는 무지가 얼마나 큰 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새로 움튼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아직 요람기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설교집은 그 부산물의 하나이다. 이미 세상에 내놓은 ‘에덴의 메아리’ 제1집에서, 우리는 이 책이 여느 설교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 설교집을 통하여 오래 끊겼던 은혜가 다시 연결되고, 향취가 진동하는 등의 체험을 한 형제가 꽤 많았던 것이다(이것은 녹음테이프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사이비 진리(似而非 眞理)가 난무하여 옥석(玉石)을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을 빚어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희미하거나 긴가민가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역사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에는 회의(懷疑)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는 의문도 가끔 생기게 된다. 그것은 대상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애써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누구와도 기꺼이 마주 앉을 기회를 갖고자 한다. 나는 이 설교집의 임자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책이 모든 것을—‘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말해 줄 터이니까. 다만 그는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을 들려주고,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주의 종임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그는 그 동안에 일부 ‘목이 곤은’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증상까지도 달게 받아 왔으나, 이제는 그런 때도 지난 것으로 안다. 여호와께서 뜻이 계셔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우리 세대에, 여호와와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리고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 설교집에 내가 선불리 사족(蛇足)을 다는 것도 부질없는 일 같다. 다만 필생(筆生)의 소임상 몇 마디 덧붙일 뿐—내 둔한 붓이 이 소중한 말씀을 잘못 전한 데가 있거나 않는지… 편달을 바란다.

1975년 4월 최현

Prologue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 책머리에 ... 06
- 재판을 즈음하여 ... 09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생명으로 이르는 길

1.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22
2. 하나님께 감사하자! 29
3.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라! 35
4. 말세는 언제인가? 39
5. 주의 종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다 44
6. 생명줄을 잡으라 49
7. 성도의 갈 길 56
8.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61
9. 주님의 행적(行蹟) 68
10. 에덴성회는 한 교파(敎派)가 아니다 80

Part 02.

여호와의 비밀을 깨칠 때

- 11. 성경에 나타난 비밀의 의미 88
- 12. 하늘의 법도와 비밀 98
- 13. 여호와의 비밀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103
- 14. 바울과 비밀 110

Part 03.

이긴자에게 허락한 주님의 언약

- 15. 일곱 별의 비밀 130
- 16. 이긴자와 생명과일 134
- 17.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137
- 18. 만나와 흰 돌 142
- 19. 이긴자와 철장 150
- 20. 흰 옷은 어떻게 입는가? 156
- 21.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라 165
- 22. 성전 기둥으로서의 이긴자 177
- 23. 이긴자의 보좌 198

Part 04. 어둠을 헤치고

- 24. 하늘의 신호로서의 나팔 206
- 25. 여호와와 섭리가 깃든 돌(石) 225
- 26. 여호와와 뜻이 무엇인가? 258
- 27. 십자가의 군병이 되자 264
- 28. 방언(方言)에 대하여 271
- 29. 여호와와 노(怒)를 풀어드리자 290
- 30. 고난의 도(道) 295

Part 01.

생명으로 이르는 길



1.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 2. 하나님께 감사하자! · 3.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라! · 4. 말세는 언제인가? · 5. 주의 종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다 · 6. 생명줄을 잡으라 · 7. 성도의 갈 길 · 8.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 9. 주님의 행적(行蹟) · 10. 에덴성회는 한 교파(教派)가 아니다

Chapter 01.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알고도 남을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를 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실제로 머리에 쓰는 관, 즉 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누릴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 후의 일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떠드는 것은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소리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신문지상에서도 때때로 보도

되고 있는 심령과학(心靈科學) 같은 것이라도 좀 들여다보면 배우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끼고 단지 교회 문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컨대, 자기가 예수의 인격으로 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본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격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연보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안찰을 받는 모든 것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뜻뜻하지 않게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소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를 운운하며, 믿노라하는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2천 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또 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당시보다 몇 갑절이나 강한 세 증거(불, 생수, 이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 그대로, 2천 년 전 옛날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계14:14-16)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천사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의 부리는 영인 천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의 종 이라고 하며, 마지막 때 땅에서 알곡을 거둬드리는 하나님의 종 이 곧 이긴자입니다.(계2, 3장 참조)

그리고 이 알곡은 성전에서 익게 되어 있으며, 이 천사는 성전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긴자와 가장 긴밀한 사이입니다. 그리하여 이긴자가 나타나 성전에서 못 심령들을 다듬어 세울 때 그 역할을 거들며, 거둬들일 때가 되면 이긴자에게 지시하여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추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종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義)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일찍이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가 극히 어려운 것을 고백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를 본받으라.”(고전4:16)고 떳떳이 외칠 경지에 이르러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이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꾸준히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면류관은 바울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2-3)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홀연히 변한 영체(靈體)로 서게 되며, 각자 서열에 따라 받는 면류관, 즉 영광이 다르게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많은 비밀이 담겨 있기에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며, 알지 못하니 지키지 못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드러낼 때가 따로 있습니다. 즉 추수 때가 되어 ‘이한 낫’을 든 이긴자가 나타나야, 예언의 내용이

속속들이 풀려 나가게 되어 있고, 올바르게 들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만 말세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별 9월호에 우리 에덴성회에 대한 소개가 단편적으로 실린 기사 내용을 읽고 기성교회에 나가는 생면부지의 독자들로부터 격려의 편지가 날아오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어느 군목(軍牧)이 내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 제1집을 읽고 찾아오는 등, 각처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학자 할아버지라도 옳은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집에 담은 글은 내가 사사로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글을 읽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나는 워낙 글과는 인연이 먼 사람으로,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 봤으며, 성경도 한 시간 이상 계속해서 읽어본 예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으면 저렇게 잘 알까 하는 호기심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방을 구경하고 간 일이 있는데, 내 책상 위에 놓인 책이라야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몇 권의 잡지책까지 합쳐서 모두 여남은 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실토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워낙 책을 읽지 않는 성미입니다. 나는 성경이나 가끔 들여다볼 뿐, 그 밖에 내가 읽은 책이라고는 10년 전에 본 ‘인간의 조건’이라는 일본 소설 한 권 정도입니다.

이처럼 무식한 내가 이 단상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내 입을 주께서 기계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이다.”(슌14:8)는 말씀도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금세 교회가 새로 들어서고 교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이런 겉모양에 의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을 팔아 인간이 영광을 누리는 폐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것도 주께서 실제로 나에게 그 광경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다림줄을 잡은 것처럼 튼튼한 은혜줄을 잡아야 합니다.(슌4:10)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 섭리 가운데 거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배운 베드로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알려면 불가불 바울의 입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주님의 뜻을 전해 주는 종의 말을 듣기 전에는 주께서 움직이는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식자(識者)들은 저마다 말세를 운운하지만, 그 참뜻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경륜으로 ‘흰 돌’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2:17)

나는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요, 또 하나는 심판을 거쳐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 마귀를 소탕하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전자(前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원하시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결국은 이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수가 차야만 새 하늘이 열리게 마련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아내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 옷은 ‘입게 하는’ 것입니다.(계19:8) 그러므로 이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최대의 목적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는 것입니다.

Chapter 02.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 3대 명절이듯이,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함께 오늘날 교계의 3대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추수감사절은 1,623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낫선 대륙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훌륭한 수확을 올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에 미국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날을 나라의 명절로 정하게 되자, 그 후로 미국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날을 명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시77:16)라고 노래하고, 사도 요

한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계 4:6)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바울이 이상 중에 가 본 3층천이 그곳입니다.(고후12:2)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들도 그 나라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와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하신 이 주님의 기도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던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앞두고 일찍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화를 당신에게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의 비통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신령한 사람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생명과일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과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으므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받을 붙일 수 없게 하지 않고, 공기를 비롯하여 일용할 양식 등, 인간이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수한 천

체 가운데서 오직 지구 위에서만 살게 되어 있으며, 달이나 그 밖의 다른 천체에는 우선 공기부터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조건 하에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의 구실을 하려면 불가불 육신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거기 알맞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영체로 변하시고, 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 세계가 펼쳐질 때 주를 맞을 성도들이 홀연히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고전15:51-52)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기 위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남용하여 죄악의 길을 더욱 줄달음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인간을 멸하려고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령 당신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지구의 공기를 거둬들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순식간에 숨통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조건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혜택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여 인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인간의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하자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 일입니다. 그 전의 인간들은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또 관여하실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창4:14 참조\)](#)

그리하여 하나님은 6천 년 전부터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당신의 경륜을 이루는 성사업에 착수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주님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도록 함으로써 [\(창14:20\)](#)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聖物)이라.” [\(레 27:30\)](#)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물을 직접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성물을 받을 직분을 맡은 사람을 대신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레위지파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보라! 내가 내 거제물(擧祭物),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應食)으로 주노라.” [\(민18:8\)](#) 하셨습니다. 하나

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아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 레위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그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이 직분을 물려받게 하는 동시에, 이 성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제사를 주관하였으므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의 화폐 가치로 치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값진 옷으로 몸을 휘감았던 것입니다.(출28장 참조)

그러나 주께서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후로는 제사법도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옮겨오고,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변경된 것입니다.(히7:11-12 참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크게 들어 쓰시면,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권한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사 결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즉시 간섭하여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고,”(삼상15:10-35) 하고 후회하고 다윗을 후계자로 내정했지만, 당장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고사(故事)를 보아도 저간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는 오늘날 이 땅에 내린 불과 생수와 이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남에게 부여준 주의 종들도 역시 여느 목회자와는 다른 특수한 사명을 띠고 움직였으며, 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판단할 자가 누구냐?” (고전4:3) 하고 반문한 것도 그의 이와 같은 특수한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주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요13:20)이라고 하신 것은 이를 밀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여호와와의 크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해 왔으며,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은총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여,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여호와와의 큰 성사업을 돕는 땅의 일꾼으로서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Chapter 03.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라!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를 먼저 불러 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 주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또 하나의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다시금 감사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아래서 곳곳이 믿음을 지켜, 없는 가운데 정성을 모아 이 성전을 마련하기에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설사 마귀의 훼방으로 잠시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내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사탄이 끝까지 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여호와에게 여러분이 뜻

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며, 이렇듯 여호와와의 큰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수록 마귀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와의 역사는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땅의 한 구석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세대 세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역사해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번번이 오해와 멸시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세대는 활기가 넘쳤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면 으레 그 세대는 어둡고 무기력하며 우환이 따르게 마련이었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암 8:11)이란 말씀은 그 단면을 지적한 것으로,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4백여 년에 걸친 신구약의 과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모르며, 따라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참 목자를 알아보는 데도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종이 신령한 말씀을 터뜨렸을 때, 사람에게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며 풀이하는 뜻도 가지각색인데, 이것

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그릇이 각각 다른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전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금방 알아듣는 말씀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사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못 백성들과 직접 교류하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교계(敎界)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명색이 독립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교도로 다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한심한 처지에 있으며, 공산 국가는 더 말한 것도 없고, 기독교 국가로 자처하는 구미(歐美) 여러 나라들은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온 세계에 부덕과 타락의 병균을 뿌리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의 여러 나라들도 대개 이교도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동양 여러 나라들을 보면, 중공은 논외로 치고, 일본은 옛날부터 사신(邪神)을 섬기는 나라요, 필리핀은 구교 국가요, 그 밖의 동남아 각국은 거의가 마귀를 섬기는 이교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나마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나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니라, 역시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6.25동란 이후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성령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항간에 유행된, ‘섰다 하면 교회요, 났다 하면 불’이라는 말이 이것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로부터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옮긴다는 말씀(마21:43)이 응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 에 그 죄를 고하라.”(사58:1)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 기울어지면 다시 다듬어 세우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큰 은총을 받은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따로 모여 제단을 마련하고, 여호와와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나마 은혜줄을 놓치고 빛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혹은 영의 양식에 굶주려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샘을 갈망하던 끝에 이 큰 은혜의 전당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서부 에덴성회 개회식에서)

Chapter 04.

말세는 언제인가?



오늘날 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입 밖에 내곤 합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몇 방 울려도 말세다, 미니스커트를 보고도 말세다, 정치가는 핵전쟁이 언제 돌발할지 모르므로 말세, 경제학자는 세계의 식량 위기를 보고 말세, 과학자는 공해(公害)를 내세워 말세, 사회학자는 인구 폭발을 가리켜 말세, 아무튼 말세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流行語)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사도 시대에서부터 말세 운운해 왔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며, [\(사42:6, 엠2:19\)](#)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마24:11, 눅21:8) 윤리가 타락되는(딤후3:1-5) 등등.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말세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눅20:43)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으나, 이들 제사장은 인간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므로 불가불 제사장의 직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갈리니, 따라서 제사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할 때,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주의 보혈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에서 주님이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린다는 성경 말씀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왜 마귀의 세력이 꺾여야 주님이 오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야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계20:3) 그럼, 하나님께서 얼른 마귀를 끌어버리면 될 게 아닌가,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그렇게 호락호락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꺾어 여호와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만히 앉아 마귀가 꺾이기를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겨 당신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계21:6-7) 즉 주님께서는 이긴자로 하여금 생수를 전하게 함으로써 죄를 씻어, 일정한 수의 하나님의 군병을 채워, 마귀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슥14:8)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이 생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생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귀가 들려 미친 사람에게 생수를 보이면 ‘피’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여러 분은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귀의 악령이 먼저 안 것처럼, 미친 사람 속에 들어 있는 악령이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영안(靈眼)이 뜨이면 생수가 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세라고 외쳤으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베드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구태여 천사를 시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기록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요엘 선지의 말이 그대로 응해지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남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줄 수 있는 자가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단12:9)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 말씀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호14:5-7) 마지막 때는 이긴자, 곧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응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고, 생수가 내리며,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긴자가 나타난다기보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원수가 발등상 될 조건이 이루어져, 주가 오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2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며, 그 이긴자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계2:26)고 했으며,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다.”(계2:27)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긴자에게 맡겨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Chapter 05.

주의 종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맡은 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더 이상 명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지시를 내리며 큰 일꾼으로 쓰시던 모세 같은 사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게 역사하였지만, 여호와와의 영광을 가로막은 일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화려한 출발과 위대한 권능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말로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만, 날날이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처럼,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종이라도, 역사하는 중에 처음 한 말과 그 결과가 맞지 않고 어긋나면 양떼는 마음속으로 구구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무지몽매하지 않는 한, 의혹과 나아가서는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연히 욕은 주님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여호와와 종이 아니고 해서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재량권(裁量權)을 주고 죄악을 짓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 죄 짓는 것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말리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종에게도 재량권을 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 기계처럼 움직이게 한다면 상도 벌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는 자기의 사명을 슬기롭게 완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사야나 다니엘 선지자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모세나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지시할 경우에 그 시대에 따라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땅의 형편을 잘 살피서 알맞게 지시를 내리는 것입

니다. 만일 하늘에서 것처럼 때를 맞춰 주시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다른 종을 세워 새로운 언약과 다른 지시를 내리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이 단상을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터뜨리고,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무찔러가면서 다듬어 세우는 역사를 하게 되자 말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 주며, 그 역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평온한 때에 여호와와의 명령을 받은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義人)이 그 의(義)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겔3:19-20)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과를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 시키라는 지시가 여호와로부터 내려진 것입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 중에 빠지고 적의 포로가 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므로, 하루 속히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 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겔4:4-5)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와께 서는 당신이 택한 종에게 미리 보여 주시기 전에는 시키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는 포로의 몸이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지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종 에스겔에게는 벌이 내리지 않지만 그들은 책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그 지시 내용을 전하지 않아 백성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주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 피를 받아 나에게 영광을 돌리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원망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니, 그들을 건지라.” 고 지시하시면서, 그 모든 광경을 여러 차례 나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자신이 우선 주의 채찍을 면하기 위해서도 부득불 그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억울한 오해를 사고 욕먹는 것이 싫어 팔짱을 끼고 가만있으면, 나는 물론이고 많은 심령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나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이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며, 부름을 받고 지시를 주시

면 싫어도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法)과 의(義)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겔18:26-28)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처럼 다시 소생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그 위에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 그들은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겔14:12-16)

구약시대에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러하였거늘, 하물며 주의 보혈을 짓밟아 버리고 주의 법도가 무너져 성령의 은사가 수포로 돌아갈 때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임을 알아야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한없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속마음을 감찰하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살인자 바울을 들어 쓰신 주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여호와의 깊은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Chapter 06.

생명줄을 잡으라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랑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에 좋은 옷감을 싸게 파는 상점을 알려 주거나, 돈을 빌려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을 때 쌀을 갖다 주고, 이웃에 병든 사람이 생겼을 때 문병을 가는 것, 물론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웃의 굶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병든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를 데려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은 더욱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여 선한 마음씨를 갖게 해준다면 그것은

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에는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요컨대 상대방이 아쉬워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물론 죽지 않고 사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 문을 드나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이웃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돈보다도 직장보다도 그 밖에 어떤 선심보다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쑥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위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개가 굶을 때 내가 쌀 한 되 줬지 하는 식으로 자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또한 복 받는 비결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약한 자가 더 많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긴 예수를 믿는다고 대뜸 성인군자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지은 죄를 씻는 데 더 치중하는 종교입니다. 즉 주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죄를 씻고 구원을 얻자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어린애의 경우도 주의 피로 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에게 무슨 책임을 물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전해진 원죄, 유전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애를 안찰했을 때 그 애가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것처럼 아파서 보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되어 입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로서의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영광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에나 빠짐없이 참석하면 할 일을 다한 줄 아는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기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상달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상달이 되어 응답을 받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

신이 산만하여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면,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약 10분쯤 기도 하고 나서 혹시 잡념이 들어오면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도드릴 때에는 십자가를 먼저 마음에 그려보고, 주의 피를 받아 마시는 심정으로 안타까이 매달리며 한두 주일 기도를 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불이나 향취나 이슬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비스럽게만 생각할 성질의 것도 못 됩니다. 영이 육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대로 했는데도 감감 소식이더라면 그건 내가 거짓 목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단에서 내려서야겠지요.

믿음이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마 11:12)는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노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기도생활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가로막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냉랭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주께 호소하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주께 내맡기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런 생활을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심령이 다듬어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저분한 욕심을 품지 않게 되고, 시기, 질투, 걱정이 사라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솟구치

고, 언제나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요컨대,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십자가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주와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요15:16)

신앙이란 약자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데 강자와 약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자며, 누가 약자겠습니까? 다 똑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강자니 약자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평가이며, 이것은 하늘나라에까지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유리한 처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믿음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환경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를 시정, 또는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여건을 기도생활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모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 제일 깊이 들어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권세, 명성 할 것 없이 이른바 모든 면에서 최대의 강자 이면서도 하나님을 눈물 뿌려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령, 주님보다 자식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마10:37)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정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여도 마음이 냉랭하다면 평소에 세상에 지나치게 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할 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대체로 혼자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주와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길을 가면서도 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울이 단조롭고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주의 도를 전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환경이 편안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희락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성경 말씀은 이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죄를 씻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회개나 전도나 기도가 그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면 손쉽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손으로 안수해 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행19:6) 그런데 문제는 오늘에 있습니다. 바울이 2천 년 전에 성령을 부어 준 것은 그때 일이요,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을 받아 죄가 얼마나 소멸되어 주의 아내 될 자격을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여러분을 지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계3:5)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Chapter 07.

성도의 갈 길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요3:16)는 말씀은 적당히 교회 문을 드나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주를 안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언제나 안에 모시고 있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주를 믿기가 어려울까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땅덩어리를 자기 수중에 넣고,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계17:18)

한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조만간 책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나한테 할 일은 충성”(고전4:1-2)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여호와와 진노가 어떻게 내렸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시나이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네 백성들이 저 모양이니 내려가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산에서 내려와 보니 기가 찼습니다. 모세는 실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실망이 앞서자 마음이 차츰 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에게 노여움을 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使者)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報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출 32:33-3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사가 앞서 가서 인도해 줄 터이니 낙심 말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려고 당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당한 때에 책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내릴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출33:3) 이것은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는 가지만 나는 안 간다,’ 즉 천사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따라서 만나도 여전히 내려 주겠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일 이므로 천사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함께 해 봤자 당신의 경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들의 2세가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태도에는 옛날과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당신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와도 주님이 외면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항상 우리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즉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과거의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날 모세가 이 세대에 살아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땅에 보내어 역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큰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대선지자를 따르던 백성들과, 학개나 아모스와 같은 작은 선지자나 사사들을 따르던 백성과, 숫제 선지자도 사사도 없던 시대의 백성들 중에서 어느 편이 복이 있는지, 그것은 아이들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일해 왔으며, 결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병은 소수의 정예부대(精銳部隊)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할례로 당신의 백성을 따로 정하셨지만, 이들을 다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사를 내세워 그들을 따르는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은총을 베풀었으며, 신약시대에도 역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극히 적은 무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 가운데서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총을 받아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동과 거취(去取)를 조심하여 주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주님 본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영의 세계에는 눈이 어두운 대신 육의 세계에 눈이 밝으므로, 편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어려운 예수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고로 주시기만 했으며,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주시오, 슬프니까 주시오, 아무튼 주님에게는 달라는 손길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냐, 아쉬울 때 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Chapter 08.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세계의 수억 신도들의 명절인 동시에 모든 자유 진영에서는 불신자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구 전체가 축제 기분에 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이 인류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童貞女)의 잉태설을 부인하여, 예수의 탄생에 찬물을 끼얹는 경향마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 이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노령으로 이미 경도가 끊어진 후의 일이었습니다.(창18:11) 그리하여 14년 전,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여종 하갈을 취하여 첩으로 삼아 낳은 자식이 곧 이스마엘이

며, 그 후손이 아랍 민족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삭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을 단념한 지 오래이므로,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창17:17)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17:19)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기적으로 보이지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므로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가 세레 요한을 낳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상 중에 사가랴에게 나타나, 늙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자 의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은 큰 불찰이요, 또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 사가랴는 병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눅1:20)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세레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레 요한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4:5-6)

는 말씀대로 엘리야의 영이 이 세상에 주의 길 예비자로서 태어났으므로, 그 체격이나 성격, 인품 등이 육의 부친 사가랴를 닮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하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와의 권능을 인정할진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태어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1:31)고 말했을 때 깜짝 놀라, “내가 남자라고는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제한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씨를 허용하시면 잉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육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요3:8) 이것은 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눈은 제한되어 일정한 거리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제비가 엄연히 백 리 밖에서 날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사이클이 높아질수록 듣지 못합니다. 냄새도 그렇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 맡을 수 있으므로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희한한 능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은 모든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먼저 지구와 달을 비교해 봅시다. 사람이 달나라로 가려면 우주복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달나라로 가면 사람은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고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세계는 땅의 세계와 모든 여건이 다르므로, 그곳에 가려면 홀연히 변하여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닐 영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환경이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적응하는 존재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주께서 마리아

를 통하여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기 위해 변조 기계로 삼으신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던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체(靈體)로 화한 주님은 문을 닫아 둔 방 안에도 무상출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입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오셨더라면 아무도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그야말로 숨바꼭질하듯이 신출귀몰(神出鬼沒)하면서 당신을 증거하신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냥 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냥 가봤댔자 여건이 판이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15:51-52)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마2:11) 이것도 여호와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육적으로는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할 때 노자로 사용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황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귀히 쓰이는

보물로, 왕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식에 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은 금 촛대 사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은 왕관과 그 권세,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乳香) 나무는 길르앗에서 자라는 관목(灌木)으로, (창37:25) 아라비아에서도 재배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고체화시킨 것으로 약효가 좋고, (렘8:22) 향료로 사용되는 값진 상품이었습니다. (겔27:17) 이 유향의 특징은 아름다운 향기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110:4)

끝으로 몰약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나는 몰약나무 껍질에서 분비되는 진액을 말린 것으로, 맛이 몹시 쓰고 향료와 방부제로 쓰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체에 바른 것도 이 몰약으로, (요19:39) 썩지 않게 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이 몰약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선물은 각각 왕으로서의 주님과, 제사장이신 주님과, 불사신(不死身)으로서의 주님을 상징하며, 오늘날 승리하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주를 열심히 섬기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며,” (계20:4) 또한 실제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

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호14:5-6)라는 말씀이 응해지고, 나아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요11:25-26)는 말씀 그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난 일 년 동안을 돌이켜 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주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사함을 받아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Chapter 09.

주님의 행적(行蹟)



1) 예언은 이렇게 응해졌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창업에 동참한 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상세한 내막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결코 땅 위에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은 구약성경에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절들이 당신 자신을 두고 한 말인 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느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이처럼 조심스럽게 간수하여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함부로 터뜨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

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예언 그대로 오셔서 3년 동안 하늘의 도를 전하였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는 했지만, 그 동기는 거의가 육적인 타산에 있었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른 무리는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고전15:6) 그나마 주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는 거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낸 성령을 힘입어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의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승리하신 보혈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와 함께 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5:2) 즉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로마의 압박에서 건져

내어 통치하는 임금이 될 줄로 생각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왕은 왕이지만,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에 대하여 예언한 대목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호11:1-2) 이것은 주님이 어릴 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상 주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주께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며, 애굽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아야 비로소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 예언의 말씀이 짝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늘에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할 만한 처녀를 물색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딸이라야 하며, 정결하고 믿음이 독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길 예비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므로 이 점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말4:5)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도록 하였습니다.(눅1:9) 여기서 주님의 길 예비자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으며, 이 사실을 천사는 사가랴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눅1:13) 그러자 사가랴는 깜짝 놀라고 곧이듣지 않았지만,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엘리사벳이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뱃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혼동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처녀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람을 생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만 하였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배면 무조건 끌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의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는 이와 같은 봉변도 능히 피할 수 있는 착실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택하고 그 뜻을 마리아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사오리까?” 하고 천사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자 그녀는 성령으로 수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약혼녀가 자기 몰래 배가 부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고민하던 끝에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마1:20-21) 하고 타이르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일가인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뱃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고,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주의 모친이 된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늘에서 미리 계산한 일입니다. 만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집안 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뱃다고 해서 상중하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요셉이 사는 나사렛동네가 아니라 멀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늘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시의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여금 영을 내려 본적지에 가서 일제히 호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26대 자손인 요셉도 불가불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에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애굽으로 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여 푼푼이 모아 둔 돈은 이미 여비로 다 써버렸으므로 머나먼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노자가 없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동방 박사들을 움직여 그 노자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와서 선물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팔아서 노자를

쓰고도 남는 귀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충분한 노자를 마련해 준 다음에, 유대 땅에 또 한사람의 왕이 났다는 말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전해들은 헤롯왕으로 하여금 나라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고 나서,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만일 요셉이 본래 순진한 사람이 못되어 이 꿈을 인간의 머리로 풀어서 달리 해석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는 인간의 성품도 천사가 다 살펴서 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지상에 분주히 움직일 때에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라기 선지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430년 동안, 하늘에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여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불러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하늘에서 지상의 일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시종 침묵을 지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사55:6)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 있는 소치가 여기 있습니다.

2) 말씀대로 움직인 주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무척 고독하셨습니다. 나이 열두 살에 이미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하늘의 도를 논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주님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았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지긋한 사람들은 너무 어리다고 상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군중들 틈에 끼어 모든 동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칠 때 요한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그를 따르는 군중들은 말라기 선지 이후 430년이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인도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기는 했지만 냉랭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선지자를 보내어 지상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세례를 받는 군중들 틈에 끼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가 바로 자기와 한 집안 사람인 나사렛의 목수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위세가 당당한 제사장 집에 태어난 세례 요한과는 너무나 처지가 달라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예수가 구세

주라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메시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길 예비자인 자기보다 월등 뛰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분신으로 온 요한이 이렇게 생각할진대, 다른 사람들의 실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권력층이나 지식층은 다 떨어져 나가고, 백사공인 베드로가 수제자로 뽑힐 정도로 주님의 측근에는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은 모여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당신에 대하여 갈릴리에 빛이 비추이게 된다고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움직이신 것입니다.(사9:1-2)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즉 주께서 비유를 많이 든 것도 시편 78편에 “비유로 옛 비밀을 발표한다.”(시78:2)는 말씀에 따른 것이며,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유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사53:4)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통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사42:3)는 말씀 그대로 하신 일이며, 병을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도(마12:16)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사42:2)는 말씀대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못한데 소문만 크게 나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할 것이며, 이리하여 바리새 교도들에게 맞아 죽기라도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려는 여호와의 계획은 낭패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한 후에는 수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슌9:9) 만일 이때 주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벗어 길에 까는 많은 지지자들이 없이 혼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미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귀를 타도 때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41:9-10) 이것은 다윗이 주님의 측근자인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 역시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주님이 은 30냥에 팔려 간다는 것까지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雇價)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팔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슌 11:12-13)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언도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살짝 삽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예언은 성경 여기저기에 토

막 글로 삽입해 놓았으므로, 주님은 그것이 당신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전체의 내막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마귀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짐짓 숨겨 놓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선지자에게 주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죽 들려줘 한 눈으로 누구나 환히 알아보게 했다면 마귀가 미리 다 알아차리고 훼방을 할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실 계획이 이와 같이 미리 짝 짜여 있었으므로, 그대로 움직여야 할 성서적인 인물이라 그 예언들을 순서에 따라 착착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가지 예언을 이루면 또 다음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예언을 이루면 또 다음 예언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정된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요19:30)

성경에는 주께서 어떻게 당하리라는 것도 일일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심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도(마26:63, 27:13) 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사53:7)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당신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참

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食物)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시69:21) 이 다윗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요19:29)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두 발과 두 손에 쇠못이 박힐 것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시22:16)라는 말씀 그대로이며, 심지어 주님의 겹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뽑아 가진다는 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시22:18)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도, 시편(22:1)에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읊조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원이 아니며 불평은 더구나 아닙니다.

이리하여 주께서 미리 짜인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자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기뻐 날뛰었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주님의 피로 죄인을 다시 살리는 여호와와 거룩한 경륜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단편적으로 예언하도록 한 말씀들은 오직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승리의 나팔을 우렁차게 불었습니다. 그 보혈은 2천 년이 지나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는 심부름꾼으로, 주께

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를 전할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고전9:16)는 바울의 말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의무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손길을 통하여 죄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을 것이며, 내가 입김을 불어넣은 생수로 굳어 버린 시체가 부드럽게 피어나는 것도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께서 그와 같이 아프고 쓰린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덕택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Chapter 10.

에덴성회는 한 교파(敎派)가 아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의 제단을 마련하게 된 것을 주님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정성어린 협조를 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이웃에 그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에는 교파가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면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무슨 교다 해서 시비가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이것은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경을 깊이 캐고 따지다 보니 견해의 차이가 생겨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 선의(善意)의 경쟁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가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여러 갈래로 쪼개질 리가 만무합니다. 더구나 각 교파끼리 질서와 반목을 일삼고, 나아가서는 분쟁까지도 일으키는 폐단이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파들은 서로 공동 분모(分母)를 찾아내어 차츰 뭉쳐 나가는 커녕, 점점 더 갈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 교회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신흥 교파만 해도 무려 50여 개가 됩니다. 이는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파가 자꾸 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며, 또 그들 나름의 명분 같은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컨대 성경에서 말하는, 당을 짓는 무리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흔히 아무개가 좀 신령하다 해서 갈라지고, 누가 무엇을 연구했다 해서 따로 나가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고—이렇게 해서 느는 것이 교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성회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또 탄 교파가 하나 더 생겼구나 하고 비웃음을 사게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걸 무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덴성회는 새로 발족된 기독교의 한 교파요, 이영

수가 교주이고 여러분은 그 양떼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자질과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젊은 놈이 뭐가 답답해서 욕까지 먹어가며 청춘을 바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미하거나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은 지금쯤 여러분 자신이 주께서 제시해 준 산 증거를 보고, 듣고, 직접 체험을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노트를 뒤져보니, 주께서 제단을 또 하나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바로 작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꼭 그만한 제단을 이곳에 새로 세우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일을 해 나가자니 애로도 적지 않았으나, 어쨌든 우리가 땅에서 힘을 합쳐 하늘의 지시를 그대로 준행하였으니 무척 흐뭇합니다.

우리 에덴성회는 이와 같이 일일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여느 교회와 다릅니다. 이 단상을 통하여 터져 나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신학 서적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여 철학, 문학까지 섞어서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꼼꼼한 성격도 못됩니다. 그저 성경 한두 줄 읽어보는 것이 고작이고, 그나마 생략해 버리고 단에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당신의 마이크로 써 주십시

오.” 하는 기도 한 마디로 설교 준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의 해석보다는 내일의 전망에 대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늘에서 이 세대에 필요한 새로운 섭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여섯 살에 하나님을 알게 된 나는 석 달이 지나 성령의 불을 받고, 영광 중에 주님이 강림하신 광경을 본 후로, 영육 간에 이상한 변화를 느껴 오다가, 21세 때부터 주와 항시 교류하는 가운데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거센 비바람과 진창 속에 던져 연단하실 때 나는 눈물 뿌려 주께 간구하면서 가시밭길을 헤쳐 왔습니다. 시일이 지나 갈수록 주의 섭리는 크게 나타났으나, 나는 혹시 마귀가 틈탈까 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간수해 오다가, 막상 73년에 정식으로 나가 외치라는 주의 지시를 받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자란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지시를 땅에서 그대로 준행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움직임이 합당치 못해 주의 눈 밖에 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양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을 괴롭힌 자들의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제사장을 비롯하여 당대에 내로라하는 자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도 한갓 무지한 뱃사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깊은 내막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고전 2:10) 또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알고 깨닫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首弟子)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고도 남았으나, 위급해지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남들에게 부여준 베드로의 손길이 소중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고 혼자 아무리 몸부림치며 애써도 좀처럼 되지 않던 사람의 몸에 그의 손길이 한번 닿기만 하면 즉시 성령을 받게 마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성령은 주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부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몹시 공경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행8:17) 바울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행19:6)

오늘날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여러 모로 베풀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를 놓고 한국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 철야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시체가 변하나.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 근 2,000년이 지나 비로소 베풀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며, 그 위력에 있어서 당시보다 몇 갑절 더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증거를 보여 기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신령한 말씀으로 다듬어 세우고 성령으로 씻어 하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계19:14)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멜기세덱의 반열에 세우려는 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계19:8, 20:4)

에덴성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 곳ियो, 우리가 따로 제단을 마련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느 교회보다 좀 은혜롭다거나, 성경을 잘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에덴성회도 하나의 교파를 형성한 신흥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어 남의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따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당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 초창기라 이렇게 조출한 가운데 조용히 주의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만 시일이 흐르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제단도 쌓지 못하고 겨우 한 주일에 한 번 한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용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움직이는 데 따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먼저 이 은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책임이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귀한 하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려는 심정으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이는 숫자만 늘여서 흥청거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量)보다도 질(質)을 보십니다. 요컨대 땅에서 의로운 수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에덴성회 개회식 날에)

Part 02.

여호와의 비밀을 깨칠 때



11. 성경에 나타난 비밀의 의미 · 12. 하늘의 법도와 비밀 · 13. 여호와의 비밀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 14. 바울과 비밀

Chapter 11.

성경에 나타난 비밀의 의미



1) 시대와 비밀

여호와와의 경륜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의 도와, 그 밖에 말세에 이루어질 일 등은 신구약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헤아리는 데 성경만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문명의 발달과 인지의 계발에 따라 어느 세대에 특별한 지시를 내릴 필요를 느끼실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일을 할 때 사회 환경을 참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도 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우리나라 서울과 오늘의 서울을 견주어 보면 모든 문물과 제도, 습성,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100년 전의 서울에는 교통 수단이라고는 우마차나 가마, 인력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열두서너 살만 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 상투를 틀어 장가를 보냈는데, 오늘날 만일 그런 부모가 이 서울 바닥에 있다면 미친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생각해 보아도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2천 년 전 주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모든 면에서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지금 나귀를 타고 서울거리에 나타나면 곧 교통 위반죄로 잡혀서 즉시에 회부됩니다. 가령 오늘날 바울이 2천 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곳 서울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하늘 아래 그런 시골뜨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호화찬란하게만 보여 어리둥절한 나머지 전도할 엄두도 얼른 내지 못할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어린애를 낳을 때 난산을 할 듯싶으면 얼른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무난히 산모와 아기를 건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부모를 의지하는 힘이 강한 것처럼, 지적인 수준이 낮은 옛날 사람은 그만큼 여호와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세대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내리시게 됩

니다.

바울은 주께서 비밀을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엡3:1-3) 그런데 바울에게 내린 이 계시는 바울 당대의 모든 형편에 준하여 보여 주신 것이며,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중에는 이미 우리와 별로 연관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할례에 대한 여호와와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트기 위해 바울은 오해와 중상을 많이 받았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으나, 오늘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요즘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이 세대에 필요한 지시를 당신의 종을 통하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계시도 아울러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마지막 날에 될 일은 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에게 보여 준 계시도 당시의 모든 상황에 준하여 내린 것이므로 여호와께서는 오늘의 이 세대에 부합된 지시를 내릴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에는 이에 대한 것이 미리 예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는 말씀이 그것이며, 여기 흰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이 바로 새로운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즉 이 흰 돌에는 여호와와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종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하늘의 도를 전할 때 육을 먹은 것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통달한다고 반박했던 것입니다.(고전2:10)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인간 바울의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대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식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나름으로 풀이하는 데 그치며,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지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말씀을 학문만으로 다룰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 전략과 비밀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크신 경륜을 위해 과거 6천 년 동안 당신의 적대 세력인 마귀와 싸워 왔으며, 또 오늘날도 부단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투쟁 과정이 곧 인류 역사의 한 모습이며, 거기에는 언제나 간과하기 쉬운 양

자 간의 치열한 대결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시지만, 대적인 마귀도 영체로 만만치 않은 적수이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투쟁에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전략상 비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 여호와 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 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시78:1-2) 여호와와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알기 어렵고 해석이 구구하여 여러 교파로 갈리는 것은 이 때문 입니다. 만일 곧이곧대로 표현하면 곧 마귀가 알아차리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 말씀을 감춰 두었다가 적당한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터뜨리게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각자 자기 머 리로 해석을 내리므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 에 비유로 기록된 비밀은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악령이 서로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양자는 인 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를 공경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 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일에 얽매어 번거로움을 느끼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이 양자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라는 바울의 탄식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가면 마귀는 이를 훼방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작은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번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일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신앙 문제로 말미암은 괴로움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편에 굳건히 서서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없게 되면 그때에는 신앙적인 고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의 은혜 사슬 되어 나를 주께 맏소서.”하는 찬송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그렇고,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는 경지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아무리 바동거려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절로 우러나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 교만, 시기, 미움 등등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직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원치 않는 죄의 찌꺼기들은 은혜를 받아 씻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히9:22)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주의 피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씻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씻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3) 예정과 비밀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대개 미, 소의 두 세력이 조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싸움의 주도권은 이미 두 나라에서 잡고 있지만,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은 각각 그 세력권에 들어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것은 큰 나라들은 피해를 입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한다면 그 실력이 비슷하여 한 쪽이 승리하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여호와와 용은 정면충돌을 피하고 그 부하를 시켜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첫째 부하, 곧 부리는 영은 천사요, 다음은 주의 종이며, 마귀의 첫째 줄개는 짐승이요, 다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타격을 받지 않고 간접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다름 아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이 있는 이 땅에서는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출애굽기의 기록을 내세울 것도 없이, 우리는 마귀의 계교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를 6이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완전수인 7과 비교해서 그 세력을 숫자적으로 풀이 해 볼 때 7:6의 비율로 마귀의 힘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생명과일을 지었을 때 마귀는 겉모양이 이에 못지않은 선악과를 만들어내었으며,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을 때 마귀는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마귀의 도전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자 사이의 싸움은 그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즉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가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여호와의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세력과 6천 년 동안 대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싸움은 계속될 터이지만 이제는 끝장을 볼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을 비롯한 인간의 온갖 비극은 실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기르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기른 정도 낳은 정 못지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그 중간에서 낳은 부모도 괘시 못하고 기른 부모도 등질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마귀의 세상을 저버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편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고, 마귀는 자기편으로 우리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갈 길은 뻔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본래의 고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실천에 옮기려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향으로 찾아가게끔 인도하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룰(규례)입니다. 이 룰은 이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정이며, 이 예정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룰은 하나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

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나 선지자와 사사 및 성도에게 마귀와 싸울 권세를 주듯이, 마귀도 짐승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심지어 술객들에게도 하나님과 대적할 권세를 주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

Chapter 12.

하늘의 법도와 비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렘33:1-3)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의 사람으로, 주전 62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앗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했으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출해 내는 데 실패하여 그를 가리켜 ‘슬픔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선지자 장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따르던 무리는 운명을 함께 나누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여 세운 선지자이지만, 여호와와 그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그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땅에서 이처럼 여호와와 그의 뜻을 좇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응분의 벌을 내리게 마련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그의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패하여 큰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처럼 적에게 크게 패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흥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렘33:4-5)

이 말씀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한 측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은 고금의 공

통된 혈육의 정이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는 꾸짖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엮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 여호와 당신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치 않아 여호와 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호와께서는 노와 분함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저들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성을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내가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렘32:33-3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지은 죄상입니다. 여기 그들이란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그 방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및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큰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일일이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이리저리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어디가 나쁜지 먼저 진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당시의 폐단이 무엇이며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예레미야가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

레미야에게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는 그것을 저들에게 알려서 시정케 하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시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조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와 비교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였는데, 여자 쪽에서 마음이 변하여 나를 일단 멀리했다가 생각이 달라서 나에게 되돌아왔다면 나는 그 여자를 전과 같은 심정으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달리 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정에도 이와 같이 인간의 감정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무조건 베푼 은총을 백성들이 짓밟아 버린 후에 다시 베푼 때에는 전과 달리 반드시 조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부름을 입고 지시를 받은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하늘에서는 언제나 땅의 움직임에 따라 거기 합당한 은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서 낮잠만 자도 된다면 이 더운 날씨에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단상에

서 “나의 자랑은 성도들뿐이다.” (살전2:19)라고 말한 바울의 심정을 상기해 봅니다.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 불붙기 시작한 이 성령의 새 역사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마11:12)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Chapter 13.

여호와와 비밀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1) 선지자와 비밀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군사상으로나 외교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문서에 으레 비밀이 따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귀를 상대로 싸우면서 당신의 경륜을 펴 나가는 치리에서도 비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여호와와 비밀은 당신의 가르침을 기록한 문서인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으며, 그때그때 땅의 움직임에 따라 비로소 터트리는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3:7)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여호와와 종의 귀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죽이고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일진대,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암3:1-3)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지만, 동시에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지상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땅에서도 큰 명예를 누리고 이를 간직해 나가려면 고충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며, 자칫하면 큰 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채찍을 얹어서까지 당신의 편에서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이방인이라면 멸망을 면치 못하는 대신, 이런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단 택하신 백성의 경우는 어디까지 여호와와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하므로, 잘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만간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꺾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사42:3) 것

이 곧 여호와와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곧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려는 것이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보응하시는 여호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미리 당신의 종에게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즉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으므로 보응을 한다는 것이며, 그 죄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여호와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암5:4)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이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다짜고짜 채찍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안이 빙빙하여 반감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그 채찍의 효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자행자지(自行自止)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당신의 종을 세워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도 이를 전해들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곧이듣지 않는다면 이 역시 두 사람이 합의하여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합심하여 하나님에게 향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 주님과 비밀

여호와께서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행하시게 되어 있으므로(암3:7) 이사야나 예레미야,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나, 주님 자신은 창세의 대업에 동참하시고(창1:26, 요17:5) 하늘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시는 하늘의 분이므로 설교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들 선지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온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마13:1-3)

주님은 육신을 입고 초라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가의 호구를 위해 역시 목수 일을 하다가 시기가 이르러 하늘의 도를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애로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 와서 주님을 증거하긴 했지만, 주님을 하늘의 사람, 즉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그 태생부터가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어주지 않았으며, 주를 따르는 무수한 무리들은 대체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도를 전한들 좀처럼 먹혀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다 흩어져 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돌팔매도 날아들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실을 곧이곧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변죽만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유일한 무기가 다름 아닌 ‘비유’입니다.

주께서는 물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동시에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29:14)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에 일일이 트집을 잡고 늘어졌으며, 하늘의 도들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13:13-15) 주님은 생전에 해야 할 말씀을 다 못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당신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15:26) 생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서 죽음을 앞둔 며칠 동안의 말씀을 제외하면 별로 깊이가 없는 대신에,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계시록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밀에 속하는 것은 다 비유로 얼버무려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하여 그 까닭을 물었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되었다.” (마13:14-15)고 이사야 선지의 말(사6:9)을 인용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존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로, 이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 줘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무리라는 것을 주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숫제 눈을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여러 번 반문하여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늘의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력의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착오와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성경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군데군데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져 있는 대목이 많은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경 기자에게 말씀을 주시되, 당대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려 놓았는데, 이것을 일반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가르침을 받아서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주여 이 모든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여 봉함하라.’”(단 12:9-10)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덮어두면 그때 터뜨릴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부음을 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의 원칙이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내가 너 생기기 전에 택하였노라.”(렘1:5)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워서 키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기름을 부어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면 그는 한평생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그 사명을 이루고 못 이루는 차이는 있을망정 종의 직분은 변치 않습니다.

Chapter 14.

바울과 비밀



1) 할례 폐지

여호와께서 크신 경륜, 즉 이 땅에 의로운 하늘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선정하여 할례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역사해 오시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 하늘의 도를 널리 이방인에게도 전파하여 범세계적으로 각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고루 퍼지게 하였는데, 이때 들어 쓰신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도를 전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귀하신 법도를 숭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미리 약속하신 바이기도 하지만, (사49:6) 당시에 들어 쓰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움직임이 여호와 보시기에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였습

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내세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도를 주어 전하게 했으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롬 11:24)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물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며, 위 말씀은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와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바울의 입을 마이크로 삼아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에는 바울이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들어 쓰시는 바울에게만이 새로운 하늘의 법도를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 준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주님도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자,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15:24)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인

이 끈덕지게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자식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자, 주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마15:26)고 대답하시면서 여전히 상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굴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고 은총의 찌꺼기라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니, 그제야 주께서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 자식을 병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는 비결의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남달리 간절하여 끈덕지게 매달리면 긍휼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구원의 은총을 넓히려는 당신의 새로운 뜻을 전하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여호와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오.”(롬10:14) 바울은 분명히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전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곧이듣지 않아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롬11:25)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막상 실제로 전하니,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도들과 그 밖의 교역자들의 귀

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 나뭇의 충성이겠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여호와와는 한동안이나마 이런 혼란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는 그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빛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내세워 당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바울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는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ᄃ14:9)

그런데 애쓰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알려 주시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나 무슨 공로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씻고 다듬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휘방한 반역자요,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그때 당신의 사람을 세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모르고, 또 알고도 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 되려

니 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소박한 신앙 태도라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살아서 주를 믿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마지막 때의 신앙인은 이런 하늘의 움직임에 유의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2) 바울의 복음

사도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의 성령은 처음으로 체험하는 은사이므로 기쁘기만 하고 좋기만 하여, 백성들은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목회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따라 은혜의 창파 속에 젖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키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성경에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며,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만은 못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들은 이와 같은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베풀어져 병이 낫고, 이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행4:30)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행10:44) 즉 불의 성령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임하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간증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성령이 몰래 임하였다면 장본인이 알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성령이 임한 여부를 말할 수 없을 터이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누가가 마음대로 지어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차스럽게 옛날 일을 상상해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처럼 설교할 때 성령을 받아 본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열심히 매달리면 이런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설교의 의미에 대해서 짐작이 갈 것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쪼개어 영의 양식으로 양떼들에게 먹여 주는 동시에, 은혜를 끼쳐 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 미리 성경과 신학 서적을 뒤져서 원고를 작성하여 그것을 읽어 주다시피 하거나, 거기 준해서 기계적으로 떠드는 그런 설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로 여겼으나(행4:13) 그들의 열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이들의 입을 당신의 마이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요한의 입을 거쳐 나온 말은 실상 주님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조화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있는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는 물론, 다른 문도들, 가령 스테반 같은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행6:8)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것 내 것 없이 지냈습니다.(행4:32)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의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결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수그러지고 시들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교묘히 가로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속수무책이던 마귀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자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도 손을 달리 쓰셔야 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도 바울을 내세워 새로운 법도를 전하게 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은총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이때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은 지난날의 어린이와 같은 순진성을 잃고 먼저 따지기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자랐기 때문이며, 이런 의미에서는 가상하다고도 하겠으나 은혜 받는 데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고 아이들에게 나타내며,(마11:25) 마음이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마18:3)

이들 중에는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은총을 받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 영의 세계에서 어른이 된 것으로 자부하고 일일이 비판적인 태도로 바울을 대했으므로, 바울은 전도에 나선 지 처음 몇 해 동안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슬슬 변죽만 울려오다가 10여 년이 지나 어느 정도 따르는 식구가 늘어 기반이 잡힌 후에야 겨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한 바울의 심정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3층천에 갔노라.”(고후12:2) 바울은 3층천에 갔던 이야기를 14년 후에야 비로소 터뜨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반이 다져지기 전에 이런 실토를 해 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코웃음을 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주님 생전에 택함을 입은 사도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과외의 사도라고나 할까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에 의해 사도의 인침을 받았다.”(고전9:2)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도들에 의해 사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어느 누구 못지않은 사도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고후12:11-12) 어찌 보면 너무 도도한 것 같지만, 이것은 “나를 본받으라.”(고전11:1)고 외칠 정도의 바울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롬16:25-26) 즉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감취 두었다가, 때가 되어 터뜨리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그때 세대가 다르면 주님의 종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만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 바울과 계시

바울은 유식한 학자로서 아는 것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로 생각해낸 입에 발린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외에는 슷제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고전2:1-2)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늘의 감취진 도를 전할 때,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그 밖의 듣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기에, 바울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고전2:3)

성경에는 언뜻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말 같지만, 줄줄이 여호와의 깊은 뜻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누구나 다 환히 알도록 쓰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경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한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술상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종의 기밀문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전2:10)는 바울의 말대로, 이런 감춰진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때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고전2:7)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세 전에 정하였다.”는 말은 ‘우리의 영광’을 예정한 것이지, 박 아무개, 김 아무개하고 특정인을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흠으로 빚어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 만든 피조물이며, 결코 창조주인 여호와나 주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창2:7)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일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으며, 죽으면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으려니 하고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믿음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요14:11) 경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요6:53) 이와 같은 영생의 원리를 모르면, 마치 부

산행 기차표를 사두고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는 격이 됩니다.

생명과일과 대조적인 것이 선악과이며, 여기에는 마귀의 독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은 선악과 속에 들어 있는 독소 때문이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은 불순종의 탓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난 과자를 아들에게 먹지 말라고 일렸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다고 해서 아들을 죽여 버리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곰팡이로 인해 심한 배탈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도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주의 보혈, 곧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몸에 침투한 선악과의 독소가 우리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져 왔으나, 그 해독제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주의 보혈입니다.

여호와와의 깊은 섭리는 매우 오묘하며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밀에 붙인 지혜는 마귀가 알지 못했으며, 만일 알았던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고전2:8)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호와와의 크신 경륜을 이루시는 데 요긴한 비밀이며, 따라서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도록 이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여호와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

로는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고전2:9)으로, 이것은 성령으로 헤아리게 되어 있으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여 준 하늘의 새 법도를 가리켜, “천사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면치 못한다.”(갈1:8)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일반 신도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전2:15)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후로 주께서 항상 같이하시면서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만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판단합니다. 사울의 잘못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다윗의 잘못은 나단이 지적하였습니다.(삼상15:19, 삼하 12:9)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와께서 진작 여호수아를 점찍어 놓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그러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할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내정했다고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단 기름을 부어 내세운 당신의 종을 마구 갈아치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완전히 가나안땅에 들어갈 것을 단념했을 때 처음으로 후계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민27:17-20) 바울이 “나를 판단하는

이는 주시니라.”(고전4:4)고 한 말도 주의 종의 위치를 단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찬송가 그대로, 확고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명확한 주관관을 갖고 자기의 신앙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나날이 자라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말아야 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은 자기 판에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주님의 행적을 보도 듣도 못하고 다만 남들이 전하는 나쁜 소문에 따라 주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모조리 없애 버려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낮에 실제로 주님을 만나 뵈고 그 영음을 몸소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소행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는커녕, 여호와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크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바울을 에워싸고 환히 비치므로 바울은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만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 하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작 바울을 점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

므로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내가 모테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노라.”(갈 1:15)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치면, 이것은 바울이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서는 직접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반역자인 바울을 한 신도로 만들어 준 동기가 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며, 이 사실을 남에게 알려 줘도 그것은 하나의 간증담에 그치며,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바울을 불러 세운 것은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심사는 바울 개인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못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엡3:3)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여호와의 특별한 지시(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하늘의 지시가 다르게 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울의 손에 성령을 부어 줄 권능을 맡기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따른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바울에게 주고 계시를 내려 못 심령들에게 이리저리 하게 전하라고 했는데도 바울이 어떤 핑계를 앞세워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울은 즉시 불순종의 죄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시대로 움직였는데도 다음의 지시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 끝났거나 아니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외면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한 공인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자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양떼들을 위해 당신의 종을 필요로 하며, 이 양떼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성회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느냐 섭섭하게 해 드리느냐, 또 그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흥하고 쇠하는 분수령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성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엡6:19)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늘 유의해 지켜보

므로, 그 기도에 호소력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4) 믿음의 비밀

바울이 ‘비밀’ 운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만 당대의 긴요한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못 백성들에게 이를 전하게 하였으므로,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새로운 경륜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피의 언약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여호와의 뜻은 바울 이외에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바울의 입을 거쳐서 비로소 이 새로운 여호와의 법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여호와께서 당대에 가서 터뜨릴 필요가 있는 감춰진 비밀이었지만, 바울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당시의 많은 교역자들과 소위 민노라하는 사람들은 바울 안에서 약동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여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 치고 세상에서 고분고분 받아준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집사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의 하나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딤후3:9) 이 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비밀’은 물론 바울이 전한 여

호와의 감추었던 경륜입니다. 당대에 요긴한 여호와의 경륜을 모르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른바 비밀은 여호와로부터 그것을 터뜨리도록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 예비자로서, 베드로는 천국열쇠를 받은 종으로서, 각각 여호와의 지시, 즉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 마지막 때에 와서는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당신의 종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담대히 증거했으며, 바울과 같은 다른 종이 나타나 하늘의 새로운 도를 증거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마지막 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앙 체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령을 부어 주는 동시에 말씀으로 다듬어 믿음을 굳건히 다져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에게서 하늘의 새로운 법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자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사 직분을 주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튼튼히 다져 나가려면 우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주라는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와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종으로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양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말로만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보았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의 권능에 의해 못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고, 물을 피되게 하는 등, 행동으로 자기의 위치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떠들어보아야, 그것은 몰지각한 자들을 미혹하는 감언이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적인 것을 앞세우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으리으리한 교회를 짓고 모든 시설을 잘 갖춰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해야만 한다면 이것도 모순된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는 나와 주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냐가 문제입니다. 물질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와 상관이 없을 때 반가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영육을 아울러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Part 03.

이긴자에게 허락한 주님의 언약



15. 일곱 별의 비밀 · 16. 이긴자와 생명과일 · 17.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
18. 만나와 흰 돌 · 19. 이긴자와 철장 · 20. 흰 옷은 어떻게 입는가? · 21.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라 · 22. 성전 기둥으로서의 이긴자 · 23. 이긴자의
보좌

Chapter 15.

일곱 별의 비밀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1:19)
이 말씀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대의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앞으로 될 일,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었다는 점에서 이 계시는 주로 당대의 일을 지시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 준 그것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주께서는 이 계시를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여 주게 했는데, (계1:1) 이때 천사의 인도로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마치 바울이 주님을 뵈고 하도 찬란하여 눈이 먼 것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정신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계1:17) 우리의 부족한 육안으로는 부활하신 영화로운 주님의 영체를 눈이 부서 감히 정면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해 보지 않고서는 잘 납

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는 평소에 보아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엎드려 있는데 주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고 영음으로 일러주시고, 다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계1:18-20)

이 일곱이라는 수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온전한 수로서,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성경에는 일곱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의 비밀을 계시로 본 후,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일곱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각각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로, 요한은 지시대로 그 교회의 사자, 곧 그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자에게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 담긴 비밀의 중요한 골자는 이긴자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이긴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계2:7)고 하였으며, 둘째로 이긴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계2:11)고 하였고, 셋째로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계2:17)고 하였으며, 넷째로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계3:5)고 하였고, 다섯째로 이긴자에게 “흰 옷을 입게 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계3:5)고 하였으며, 여섯째로 이긴자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계3:12)고 하였고, 끝으로 이긴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계3:21)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주께서 이긴자에게 주의 원수, 곧 사단을 발등상 시키는 조건을 완성하는 정지작업을 맡겨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는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하고 내왕이 빈번할 때,(단12:4) 이것을 증거하는 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깊은 경륜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2천 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저명한 많은 신학자들과 부흥사, 목사들 중에서 이 계시록 말씀의 참뜻을 분명히 밝혀낸 사람은 일찍이 없었으며, 근자에 와서야 이 땅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여호와의 감춰진 비밀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통

하여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눅21:25)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에 부합된 말씀입니다. 달나라의 여행을 위시하여 천체에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 (단7:3) 곧 4대 강국에 의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3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역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좀 더 뚜렷이 느낄 때가 불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증거하고 또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 한 번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과연 자기가 튼튼한 은혜의 사슬에 매여 주를 가까이하고 있는지 반성해보면 짚이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각하고, 어깨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16.

이긴자와 생명과일



그럼 이제부터 주께서 사도요한에게 보여 주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비밀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전제한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7)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에 보내는 일곱 가지 비밀 가운데서 맨 처음의 것으로, 귀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들으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은 어떤 과일이겠습니까? 이 생명과일이라는 말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먹는 그런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일은 에덴동산에 있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자는 바로 죄 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생명과일은 맛만 감각적으로 느낄 뿐,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소화되거나 배설되지 않는 영의 양식입니다. 아담, 하와가 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소가 담겨진 순수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쫓겨나 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어 살게 하실 때 마귀가 지은 선악과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미 여호와의 성업을 훼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당부를 어기고 선악과에 입을 댄 후로 아담, 하와는 낙원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손들에게도 죄에 물든 피가 대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가 역시 그 자격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인류에게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마귀가 침투한 에덴동산, 즉 하늘나라를 되찾으려 하였는데, 이러한 성업이 바로 6천 년의 인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명과일을 먹을 수만 있게 되면 옛 아담, 하와처럼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생명과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주의 보혈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17.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둘째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계2:11)고 하였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자의 경우, 즉 첫째 사망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손을 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만장자가 되어 생전에 땡땡거리던 사람이라도 그 많은 돈을 관속에 갖고 가서 써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긴, 세상은 넓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가령 다리가 잘라졌거나 눈이 멀어 버렸거나 하여 ‘이런 불구자의 몸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 버리자’는 생각에서 한강에 뛰어

들기도 하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그대 없는 세상에 살아 뒤틀하랴’ 싶어 독약을 마시기도 합니다. 모든 자살 행위는, 이 유가 어쨌든,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죽음이 삶보다 오히려 낫다는 견지에서 그 두려움을 무릅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합니다.(시13:3, 마24:52, 행7:60)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죽으면 나중에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신앙 체험이 이것을 밀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척 슬퍼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들은 슬퍼할 만도 합니다. 심판 때에 무덤에서 다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 불을 면할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아주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그 질그릇이 깨어져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혼은 하나님이 태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지으신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심령과학이 사진까지 찍어서 여러 모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에서 혼이 떠나게 되며, 이때 이 혼은 자기의 육신을 지켜보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 혼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이끌려 일단 음부에 갇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혼은 천사의 인도로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계6:8-9 참조) 그러니까 육체는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도, 혼은 이와 같이 두 갈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여 숨을 거두려는 순간에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몹시 괴로워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주의 피로 온전히 씻음을 받아 지성소에 가는 자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며,(계20:4-5) 이들이 곧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히5:10) 그 밖의 사람들은 음부에 갇혀 마귀의 지배 아래 잠자다가, 그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주께서 음부를 열어 주면 잠에서 깨어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혼이 완전히 육체에서 떠나 음부로 끌려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 때가 이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20:12-14)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에 갇혀 있다가 천년세계가 끝나면 음부에서 놓여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죄상대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자기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열 가지 죄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고, 다섯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또 거기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듯이 죄과도 각인각색입니다.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어갔으므로 그 죄상은 엄격히 말하면 수백억 가지가 될 터이니, “행한 대로 보응”하려면 지옥의 수도 수백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이 여럿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죄인은 한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가 가려지지 않고 같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던져 넣는 불못은 영을 괴롭히는 지옥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지만 느끼는 고통은 그 죄상에 따라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형태와 내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상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이루어진 정도나 또는 기도의 힘이나 애쓰는 열의에 따라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은혜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뉘얼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경우에도 그 믿음과 행위에 따라 영광의 빛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반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보응한다.”(롬2:6)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마5:18, 24:35)

Chapter 18.

만나와 흰 돌



셋째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란 무엇입니까? 이 만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난 만나와 감춰진 만나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육의 만나요, 후자는 영의 만나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와의 것이지만, 전자는 모세를 통하여 내렸고, 후자는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또’라는 말에 우리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즉 같은 이긴자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나의 세대와 흰 돌의 세대가 달라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드러난 만나와 감춰진 만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양식과 금은보화도 상당히 갖고 갔는데 몇 달이 못 가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 고된 광야의 생활은 소비로만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오늘날 석유가 많이 나는 아라비아 땅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린 창자를 안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굶어 죽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만나입니다.(출16:15)

이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잠들어 있는 새벽에 깃새 같은 양식이 땅 위에 무서리처럼 내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바쁘게 식구의 수만큼 하루치를 그릇에 담아가게 하였습니다. 만일 욕심을 부려 식구의 수보다 더 많은 만나를 담아가거나 여러 날 치 분량을 담아 가면 그 나머지 만남은 썩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내려 이른 아침이면 받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만은 이를 분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몇 달 치씩 잔뜩 쌓아 놓고 먹게 하지 않고, 이처럼 번거롭게 날마다 만남을 내려 주는 수고를 하셨

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배가 부르면 게을러져서 당신의 말씀이나 당신의 종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떡이나 빵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과자처럼 달콤하여 반찬이 없어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 아무리 과자처럼 달콤하여도 나중에는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에 메추리 떼를 날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근처에 주둥이를 박고 쓰러져 죽게 하여 고기 맛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만나는 누구나 눈으로 보고 가져다 먹을 수 있었으니, 이것이 곧 ‘드러난 만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상 중에 본 것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춰진 만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린 육의 양식인 드러난 만나와는 달리, 이 감춰진 만나는 영의 양식으로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 내 살은 참된 식량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요6:47-56)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살과 피는 감춰진 만나

로 이긴자를 통하여 이슬 같은 신령으로 내리고, 못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떡’인 주의 피와 살을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게 되어 있으므로, [\(계21:6-7\)](#) 이긴자가 나타난 세대와 장소에서 그를 만나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말한 ‘감춰진 만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인들에게 ‘이슬’ [\(호14:5\)](#)과 ‘생수’ [\(슥14:8, 요7:38\)](#)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춰져 있다’는 말의 의미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흰 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이긴자에게 흰 돌을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돌의 권세로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이야기했지만, 가령 야곱은 돌로 성전의 기둥을 삼고, 모세의 십계명은 돌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주님도 돌로 비유하여, “부딪치는 자가 깨어져 가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흰 돌에 쓰인 ‘새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박 서방, 김 서방 하는 그런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흰 돌에 새긴 새 이름에 대하여 분명히 풀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계19:13) 주의 피를 뿌린 옷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흰 돌에 새긴 ‘새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지상의 처지에 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긴자에게 새 이름, 곧 새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새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호와와의 경륜이 기록된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머리에 쓰인 ‘참람된 이름’(계 13:1)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참람된 이름은 감춰진 마귀의 경륜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서로 작전상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계11:1-7) 하나님의 편에 제일 가까운 두 증인과 마귀의 편에 제일 가까운 짐승은 이처럼 싸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년세계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전략상 마귀에게 권세를 허용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 즉 1,26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며,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

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 교파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이런 폐단에서 오는 불행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계22:18-19)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번덕을 부린다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새 하늘나라가 임할 때가 임박하여 두 증인이 증거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는 무저갱에 갇혔던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계11:7)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20:1-3) 이 마귀가 잠깐 놓이는 것이 다름 아닌 1,26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의 세계이므로 이 1,260일이, 우리가 땅에서 사용하는 날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지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를 비유로 들었을 뿐입니다.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

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20:7-8) 이것이 곧 하나님과 마귀의 마지막 셋째 싸움(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마귀가 완전히 소탕되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는 천년세계가 지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 곧 여호와의 새 경륜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다져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이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슥14:7-8) 나도 전에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으나,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주께서 이 구절을 가르쳐 주셨기에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은 주의 원체를 가리키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동해로 흐르는 생수는 새로 솟아난 것이고, 서해로 흐르는 생수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빛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며, 믿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어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새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 그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14:14-16)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알곡은 거두어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알곡의 수와 선지자와 순교자의 수가 합하여 14만 4천이 되면 주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19.

이긴자와 철장



일곱 비밀의 네 번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계2:26-28)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

라.’ 하시도다.”(시2:6-9)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영의 문제에 가장 깊이 들어간 저자가 주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 오실 주님의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 때부터 26대를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와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고, 널리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와 권세(철장)로 악의 세력을 질그릇처럼 부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요, 여호와와 아들이시며, 또한 창세의 성업에도 동참하였습니다.(창1:26) 그러기에 주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하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요14:12)고 하였는데, 일찍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주께서 하시지 못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키고, 바울이 성령을 부어 준 것이 바로 그것으로, 이것은 주님 당시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주님이 땅에서 하시지 못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즉 아무도 주님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긴자에게 물려주시고,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위치가 어떠하며, 그 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다만 성경 말씀에 따라 그대로 전해 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의 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고전4:15)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갈4:27)는 것은 이를 가리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단상을 통하여 일찍이 남들이 입밖에 내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신령한 말씀을 터뜨리고 싶지 않은 주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대왕 코너에 남녀 쌍쌍이 밤새 고고 춤을 추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불길에 휩싸여 아주 가 버렸더군요. 예수를 것처럼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신앙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쯤 어디에 가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일은

실로 요지경 속입니다.

다음에, 이긴자에게는 주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욱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습니다.(마2:2)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에 연구가 깊은 사람들로, 주께서 말구유에 계실 때 별의 인도를 받아 약대를 타고 찾아왔으며, 이때에 이들이 선물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린 주님의 양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들 박사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늘에 새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이상 중에 지시에 의해 그 별을 따라 방향을 잡아 여러 날을 두고 페르시아 사막을 횡단하여 별이 머리 위에 멈춘 곳에 이르니,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고 값진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주께서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22:16) 새벽별이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며, 새벽별, 곧 주님을 주신다는 말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골2:28)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을 내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긴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남에게 부어 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내리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꼭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과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늘에서 하시는 일로, 어느 개인이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자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다만 기질적으로 그 심부름을 하기에 적합할 뿐, 육적으로는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못 심령을 주 앞에 이끄는 사람이며, 결코 자기 앞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이와 같은 자기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면, 흔히 영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인간을 숭배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야말로 이 개인 숭배를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만 실망하여, 우리 에덴성회에 와서 다시 소망을 찾고, 그에게 축복일 날에 저한테서 안찰도 받았는데 주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본인도 이것을 미리 예감했던지, 집에 가자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한 뒤 잠자듯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시체는 제가 축복한 생수로 아름답게 변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몇 시간만 지나면 시체가 뻗뻗이 굳어 버리고, 시퍼렇게 멍들어 흉한 꼴을 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생수로 노글노글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은 어떤 현대 과학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께서 이 단상을 통하여 내리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도깨비 소굴에 갔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죽어서 이처럼 아름답게 변해서 가니, 이것도 도깨비장난입니까? 우리를 도깨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동지요, 믿음의 형제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20.

흰 옷은 어떻게 입는가?



1) 두루마기를 빠는자들

오늘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비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이긴자에게는 주께서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곁들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 19:8) 이 깨끗한 세마포가 곧 여기서 말하는 흰 옷으로, 그것은 본

문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피로 죄가 말끔히 씻겨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행실을 하게 된 성도가 입는 옷이므로 흰 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은 깨끗하고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22:14) 에덴동산에 들어가려면 그 두루마기를 새하얗게 빨아 입어야 하며, 여러분은 지금도 각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이 세탁을 게을리하여 때가 남아 있거나 얼룩이 졌다면 그 사람은 영광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에 들어갈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의 지위에 올랐을 때 입은 것이 세마포 옷인데,(창41:42) 이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년성에서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할 큰 권세를 잡을 자도 마찬가지로 세마포 옷을 입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실이 올바른 성도는 뿔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여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계20:4) 그러기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또한 구약시대에 아론의 반차에 참여하는 제사장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레 6:10)

세마포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권세와 심판할 권세 및 제사장

의 권세를 상징하며, 반대로 굵은 베옷은 슬픔과 치욕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풍속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두 민족 모두 사람이 죽어 초상이 나면 상주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즉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마귀가 권세를 잡는 1,260일에 대해 예언할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계11:3)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단12:5-7)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며,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란 주님이요, 강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은 바로 두 증거자, 곧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광경을 다니엘에게 알려 준 후에 다시 보여 준 계시이며, 다니엘은 본대로 기록했을 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단 12:8-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므로, 그때까지 봉해 두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가 주의 가르침을 받

아서 터뜨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강 양편에 선 자 중에서 하나가 주님에게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물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증인, 곧 이긴자가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주의 가르침을 받아 봉해 둔 말씀을 터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긴자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은혜 좀 받고 나서 “내가 이긴자다!” 하고 한번 외쳐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17)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게 됩니다.(행3:21) 주께서 직접 모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기다리며,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내세워 만유를 회복하는데, 그가 바로 이긴자입니다.(계2장, 3장 참조)

여러분, 지금은 두루마기를 빨 때입니다. 내가 몇 십 년 예수를 믿었소, 내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여러 해 주님을 위해 애써 왔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예수를 믿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받아 귀신도 몰아낸 자들이 이와 같이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가를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2) 옳은 행실과 세마포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계7:4) 즉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놓았습니다.(계7:5-8) 이 12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일찍이 야곱의 아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여호와와의 경륜을 이루는 데 기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득한 옛날, 그러니까 이미 근 4천 년 전에 죽었으며, 따라서 그가 다시 살아서 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죽은 지 1,000년도 더 지나 이사야의 입을 빌어

영적인 야곱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여,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사41:8-9)고 했으며, 그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겠다.”(사41:15)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야곱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계2, 3장 참조) 그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할 것을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육적인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새로운 영적 야곱은 주의 피로 씻음 받아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한 자로서, 주께서 이긴자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지령이 같은 야곱을 불러서 새롭게 만들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는다.”(사41:15)고 하였는데, 이 야곱은 지령이와 같이 더럽던 존재를 주의 피로 씻어 세워서,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육적 야곱은 천사를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고, 영적 야곱은 주의 시험을 이겨야 이긴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긴자가 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언약을 받게 되고, 이어서 이긴자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언약 가운데 거하며,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긴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자들과 기존의 순교자들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육적인 이

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주의 피로 구속 받은 자력자들이 각 민족 가운데서 배출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계5:9) 그리하여 이긴 자가 언약 가운데서 구속을 입은 자들의 수를 채우게 될 때에 주님의 온전한 혼인 기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계19:7)

성경에 주님이 지성소에 가서서 이들에게 세마포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6:9-11)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신구약시대에 순교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마련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언제 하늘나라를 회복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가 바로 흰 옷, 곧 세마포이며, 차기를 기다리는 그 수가 다름 아닌 14만 4천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에는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7: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순교자 이외에도 인을 쳐서 그 숫자를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20:4)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이 곧 주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주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을 자들로, 재림주를 맞을 등불을 예비한 성도”입니다.(요11:26, 마25:6) 그리하여 14만 4천이라는 수가 다 차야만 비로소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계19:7)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차려면 영적인 야곱, 즉 새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할 존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일찍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 곧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라는 말씀이 응해지고,(호14:5-6)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욘2:28-32) 또 사실상 그런 큰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수를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계19:8) 혼인 기약이 이르면 아내 될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

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처녀가 신랑감이 마음에 들어, “나 당신 아내가 되겠소.” 한다고 해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아 주의 아내가 되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무리 짓는 영적 야곱을 만나, 여호와와의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엘 선지의 말대로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땅에서 베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뚜렷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와 불과 이슬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총을 입는다고 해서 다 주의 아내가 되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아내가 되려면,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는 말씀 그대로, 마귀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계17:14)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었으나, 진실하게 자기 신앙을 키워나가 마귀의 농간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성령을 능히 부어 줄 수 있는 이긴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는 있어야 합니다.(계17:14 참조)

Chapter 21.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라



1) 모세와 생명책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 준 일곱 언약의 비밀 가운데는 이긴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계3:9)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으며, 이 책을 처음으로 언급한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출32:32) 주님도 권능을 주어 전도하러 보낸 70문도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하신 종으로, 애굽에서 이방인에게 학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내는 사명을 맡았으나, 그는 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여

호수아에게 인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민27:15-20)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모세도 포함하여)은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그곳 생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모세를 만나 하늘의 새로운 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어딘가 서먹서먹하고 알쏭달쏭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관한 여러 가지 자상한 지시를 모세에게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므로 죽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내세워 자기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각자 지니고 있던 금붙이들을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며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애굽 풍속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32:10)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 대하여 움직이시는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쓸어버리고, 다음 세대의 백성을 새로 택한

다는 것입니다. 위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상을 섬긴 백성은, 설사 여호와께서 택하였어도, 진멸해 버리고 모세의 후손을 내세워 따로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 보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어긴 백성이지, 여호와께서는 급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대에 안 되면 후대에 와도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황하였습니다. 자기와 그동안 고락을 같이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멸 당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에게, 만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재앙을 내려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고 할 터이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출32:12)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 그 뜻을 보류했습니다.

모세는 두 석판에 쓴 10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하자 어처구니없어 그 석판을 깨어 버렸습니다.(출32:19)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백성들에게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몸소 계명을 새겨 주신 석판을 어떻게 그 종이 감히 깨어버릴 수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만한 재량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석판을 깨어버린 모세는 통분을 금할

수 없어 일대 숙청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박살내 버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와 편에 설 사람은 자기를 따르라고 이르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자나 형제나 친구를 막론하고 모조리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3천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출32:27-28)

이것은 모세가 마음에 격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통분을 느끼면 이런 무서운 파도가 일게 되며, 그 여파는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차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와와의 진노를 어느 정도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다시 여호와에게 올라가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덧붙여 아뢰었습니다. (출32:32)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 주셔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지워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3천 명의 희생자를 내었는데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과 남이 되어 그 심부름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경우에 따라서는 떼도 쓸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 여호와께서도 그

종의 의사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종이 고분고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당신의 일에 차질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천사를 시켜 너를 돕게 하고 적당한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출32:34)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목이 곧은 너희와 동행하다가 또다시 범죄하면 일순간 쓸어버리게 될 테니 천사하고만 가거라.”하고 일렀습니다.(출33:3)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동행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세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민14:34) 여호와께서 일단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긴자를 주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계3:5)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긴자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그 움직임을 뵈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긴자를 따르는 신도들의 움직임도 따라서 알게 됩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오게 되며,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어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호14:7) 그러므로 이 그늘을 벗어나서는 그 영광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몸가짐을 조심하여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낙심 말고 꾸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 어린 양의 생명책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시69:28) 이것은 영의 세계에 남달리 밝았던 다윗이 예수님의 대적을 두고 미리 한 말입니다.(시69:21 참고)

당시는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가운데 놓고 육적으로 싸우는 때이며,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므로 여호와에게 이와 같이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구약시대 사람을 가리키며, 따라서 온전치 못한 의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온전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전7:20)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주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롬5:19)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만, 이긴자의 경우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주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계3:5)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서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이긴자의 지위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생명책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불렸으나,(말3:16)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물려받으심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립니다.(계21:27)

성경에는 또 다른 생명책이 나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12:1)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심판 때 구원 받을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계20:12)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단12:7)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상 중에 들은 것입니다. 즉 강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에게 강가에 있는 두 증인 중의 하나가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은 데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의로운 성도의 수가 차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진 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일단 꺾이고, 다시 일대 격전을 벌여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한 다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 19:14 이하 참조)

심판 때에 지옥 불에 던져질 자의 명단은 책들에 그 죄상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

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계20:12-15) 여기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계20:4-6) 주와 함께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 자들, 즉 세마포를 입은 주의 아내 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책들에 기록된 자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왕의 권세입니다.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하고 사람을 세세토록 괴롭힌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냐고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룰(규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이러한 측면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바울과 생명책

하나님은 혼인 잔치에 초대될 무수한 무리들보다 세마포를 걸

친 어린 양의 아내,(계19:9) 곧 하늘의 군대가 되어 마귀를 박멸할 수 있는 14만 4천을 월등히 중요시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가 회복되기를, 다시 말해서 이 하늘군대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숫자가 차야만 마귀를 박멸하고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편에서 보면,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는 무수한 무리만 명보다도 하늘의 군대가 될 세마포를 입은 자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 즉 선지자나 사사 및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 역사한 하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택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갈1:15) 이런 인물이 나타날 때 그를 만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사55:6)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여호와와는 그를 통하여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바울이 주의 부름을 받아 주님과 부단히 교류하며 역사한 이후로 근 2천 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주와 직접 교류하면서 가르침을 얻고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해 왔습니다. 역대의 선교사나 목사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도 모두가 초대교회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근 2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공백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허다한 주의 증거자들은 주로 바울이 가르친 주의 법도 안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세대는 발전하는데 영적인 단계가 제자리걸음을 하여 2천 년 전보다 앞서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로 이루어집니다. 양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해도, 질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계19:14)의 수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은 바 사명이 달랐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 무대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으며, 따라서 그의 활동 무대는 애굽과 가나안땅에 이르는 광야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맡아서 이를 완수하였으며, 그의 행동반경은 모세보다 한결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곧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복지로 끌어들이는 여호와와의 지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었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4:3) 바울은 자신

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기울이던 부녀자와 그 밖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오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영예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 세레 요한에 이르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지상에 보내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전의 관례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상을 외면하고 계신 때에 태어났으므로 은혜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암8:11)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라.”(빌4:9)고 가르쳤습니다. 즉 그는 주님과 직접 교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고후12:7)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보여 준 계시는 주로 이방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전도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자입니다.(슥4:14)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온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그만큼 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나타날 때는 세상에 그만큼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다시 말

해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교통이 편리한 마스크컴(정보)시대가
와야 합니다. 오늘날은 인지가 발달되어 달나라에까지 왕래하고,
어느 곳에서나 뉴스거리가 생기면 삼시간에 전파를 타고 온 세
계에 퍼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신도
들이 수억을 헤아리고 있지만, 그들은 막연히 주를 믿으면 구원
얻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안
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치
는 때요,(계7:3) 하늘의 군대를 채우는 때입니다.(계6:11) 이 은혜 가
운데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책임이 무겁고 크다는 것을 잊
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맛보고 나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
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말3:14-15) 하고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 형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부터 먼저 구원
의 방주 속에 인도해 들어야 합니다.

Chapter 22.

성전 기동으로서의 이긴자



1) 야곱의 돌기둥

주님이 이긴자에게 허락한 여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 기동으로 삼겠다.”(계3:12)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동에 대하여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소돔성에서 소금 기동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창19:26)

소돔성은 가나안의 한 도성으로, 성주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죄악이 심히 중하여’ 여호와께서 이를 확인하고 멸하기로 작정하시자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당신의 조카를 위해 여호와에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함을 지적하여 이를 만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천사들을 소돔의 롯에게 보내어 가족과 함께 피난하도록 권면해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어긴 죄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창19:26)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당부는 여호와와의 뜻을 전한 것으로, 당시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실시되기 전이었으나 그 말이 그대로 롯의 식구들에게는 율법의 구실을 하여 어기면 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사가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다면 뒤돌아보아도 죄가 되지 않지만, 일단 지시하면 그대로 상대방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였더라.”(창19:24-25)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계시는 3층천에서 유황과 불을 지구에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3층천에서 유황이나 불이 지구에 떨어지려면 적어도 몇 억만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별빛 중에서 아직 지구에 닿지 않는 것이 있을 정도이므로,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능으로 지구에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구는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가 있고, 한 은

하에 약 300억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천체들 중에서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라는 조그마한 천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령 공기를 거두어 가시면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순식간에 몰살하고 맙니다.

본래 소돔이라는 곳은 돌소금이 많은 고장이라 여호와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불기둥이 하늘에 높이 치솟았다가 땅에 떨어지면 마치 공중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불기둥에 소금기가 많이 섞여 롯의 아내를 덮쳤다가 식어서 그대로 소금 기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은 그 후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내린 형벌의 본보기로 자주 인용했으며, (암4:11, 사1:9, 렘49:18)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지방으로 내보내면서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성읍은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10:15)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그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오르내리고,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28:13-14)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베개로 베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

고 그곳 이름을 벤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창28:22)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즉 이 돌기둥은 이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2)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호와께서 땅 위에 당신의 종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는 자고로 증거가 될 만한 어떤 흔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가령 누가 히말라야의 어느 봉우리를 처음으로 정복했다면 연월일과 어느 나라 아무개라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애굽 땅에 430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때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당시의 애굽 왕(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좀처럼 응하지 않게 했습니다. (출7:3) 이렇게 해서 이적과 기사로 여호와와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케 함은 나의 표

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도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출10:1-2)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면하게 하시자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국무총리의 직위까지 오른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창 50:25)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모든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14:18)는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의 오묘한 섭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미리 알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 (출14:14)고 타일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애굽군의 진지를 구름과 암흑으로 뒤덮고 이스라엘군의 진지를 환히 밝혀 애굽군이 감히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바다 속에 유인해 몰매장을 시켰던 것입니다.(출14:21-29)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

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지만,(출 13:21) 이것은 다름 아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출 6:6-7)는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계3:12)고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기둥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로 교류, 내지는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긴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를 가까이 한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와 같이 하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 솔로몬 성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친 목자 노릇을 한 것이 그렇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백성들을 치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적으로 만민의 왕이 된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육적인 후예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계5:5, 22:16)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동분서주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

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때까지 성전 건축을 미루었습니다.(대상22:8)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산당에 가서 분향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 훌륭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땅의 여건에 따라 알맞게 하십니다. 가령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전이 아니라 장막을 지을 것을 지시하고, 그 규모도 극히 간소하였습니다.(출25:8-27:21)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40년 나라를 다스려 어느 정도 기틀을 세우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나라가 강대해졌으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굉장한 규모의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과의 싸움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비롯하여 값진 돌과 재목 등을 준비해 두었습니다.(대상22:14) 이것을 환산하면 금, 은만 치더라도 약 50억 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다윗은 사재를 상당히 헌금하였고(대상29:4)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 및 백부장, 그리고 모든 관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대상29:6)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에겐 없는 것이 지혜 정도였습니다. 그는 부귀와 권력과 명성을 한 몸에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

었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간구한 솔로몬을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노하기도 잘하시고 선심도 후히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왕이 장만한 모든 재료를 갖고, 일찍이 여호와께서 부왕 다윗에게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크기로 말하면 길이가 60규빗이고, 폭이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왕상6:2) 이를 미터로 계산하면 한 규빗이 약 45센티미터이므로, 길이가 약 27미터, 폭이 약 9미터, 높이가 약 13.5미터 정도이니, 별로 큰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 것은 최고의 석재와 목재를 외국에서 구해 오고, 천장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는 온통 금과 은을 입히는 동시에 값진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몄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값진 돌기둥에 백향목을 입히고 성소, 지성소 사면 벽에 그룹을 아로새겼습니다.(왕상6:23-29) 그룹이란 여호와를 호위하는 영으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화염검으로 지키게 한 것도 이 그룹이었습니다.(창3:24)

솔로몬이 이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한 것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으며, 18만의 인원을 동원하여 7년 남짓 걸려서 준공을 하고, 소 2만 2천 두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 7일 동안에 걸쳐 성대한 낙성식을 올렸습니다.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왕상8:22-53, 대하6:14-42)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사르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도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대하7:1-3)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검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대하7:12-22)

그런데 그 후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고 그 뜻 가운데 움직일 때에는 여호와께서 같이하시고 이들에게 큰 축복

을 내렸으나,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범죄에 빠졌을 때에는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에서 떠나고 이방인이 침략하여 약탈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400여 년 동안 여호와께서 같이 하셨으나, 백성들의 믿음이 식어 범죄하고도 뉘우치지 않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성전을 파괴해 버리고 소중한 보물을 약탈해 가도록 하셨습니다.(대하36:18-21)

백성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크게 통회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부리는 천사가 이를 여호와께 알리고,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아뢰었더니,(슌1:12) 여호와께서 “내가 긍휼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슌1:16) 하고 비로소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학1:14) 그러자 백성들은 한 동안 열심히 여호와를 공경했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다시 희미한 상태에서 범죄에 빠져 여호와의 눈 밖에 나게 되어,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가 성전을 탈취하였습니다. 유대인 마카비가 얼마 후에 수리아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수리하여 수전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요10:22) 그리고 주님 이후에도 적지 않은 흥망과 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호화찬란한 성전을 지어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린 후로 여러 차례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되풀이하였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 여하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이긴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계3:12)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로 그의 육신에 하나님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요컨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둔 것처럼 여호와의 섭리가 이긴자에게 같이하신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4) 새 예루살렘 성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려주신 피의 권세로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주님은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장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건전한 상식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만일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만이라면 기독교는 이미 2천 년 전에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죽음으로 기독교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 구속의 거룩한 은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흘리신 피권세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룻밤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후로는 하루에 3천 명씩 회개시키는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안수하면 못사람들이 즉시 성령을 받았으며,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는 큰 이적을 행하였으나 마귀는 한 마리도 내쫓지 못했는데, 바울의 손길에는 마귀를 내쫓는 주의 권세가 같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보다 영적으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덴성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갖은 애로와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며 이만큼이라도 자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손길을 통하여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을 부어 주는 보혈의 은사가 나가고, 뻣뻣이 굳은 시체가 뽀얗게 변화하는 등,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날로 변하여 주를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업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직접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베

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행10:44)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긴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계3:12) 새 예루살렘이란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계21:9)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성문은 12지파가 차지하고 기초석은 12사도가 차지했으며, 그것은 12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며져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방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눈부신 세마포를 두른 어린 양의 아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어있습니다.(계20:4)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직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 권세(계20:4)와 제사장(계20:6)과 왕의 직분이 그것입니다.(계20:6, 22:5)

그럼 이긴자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어린 양의 아내를 표시하며, 어린 양의 아내는 신구약시대를 통틀어 순교한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로,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되어 있고,(계7:3) 그 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 야곱의 12지파, 14만 4

천이 받게 된다면,(계7:8) 여기서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즉 이긴자 위에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긴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서 그 수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기록된 일곱 가지 주님의 언약이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 재림의 길 예비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몇 억으로 헤아리고 있는데, 그들은 대개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하긴 성경을 훑어보면 그런 초보자에게나 해당되는 구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적당히 인용하여 쉽게 믿고 편안히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가르치며,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좀 수준이 높은 말을 하면 곧 얼굴을 찌푸리고 골치 아파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죽어도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중생, 곧 거듭나기를 강조하시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헛수고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마10:41 참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 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보았다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기준은 속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하였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랑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입니다.(갈5:22) 이것을 요약하면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마귀와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런 고된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이겨 나가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자 중에도 그 날에 주의 버림을 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님의 경고로 잘 알 수 있습니다.(마7:22-23) 여러분은 쉬운 예수를 믿을 생각을 말고, 어려운 예수를 믿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맞으려는 여러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모사요, 기묘자요, 임마누엘이요, 평강의 왕

으로’ 오시는 것입니다.(사9:6)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길 예비자가 있었는데, 영광의 주로 오실 때에 그 길 예비자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이긴자입니다. 그리고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를 통하여 주님의 새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이긴자는 양떼들을 이 새로운 말씀으로 세우고 신령한 만나(계2:17)로 다듬어 주님의 신부 될 자격자의 수를 채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퇴보 상태에 머물고, 한 발작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해설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하늘의 가르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인봉한 말씀을 떼어 터뜨리게 마련입니다.(단 12:9)

그런데 기독교 2천 년 역사를 통하여, 아무리 저명한 부흥사나 신학자라 하더라도, 예컨대 모세나 바울의 가르침을 재탕, 삼탕하여 가르치고, 고작해야 거기 살을 좀 붙인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이 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눈을 빼줘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몰려들어 때아닌 관광 붐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대뜸 황금방석에 올라앉게 될 것입니다.

6)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도가 어떤 원리에 서 있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며,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등등 수많은 새로운 말씀을 듣는 한편, 안찰과 생수의 축복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질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보좌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이긴자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마지막 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 죄를 저지르기 전의 에덴동산은 아름답고 눈부신 영의 세계이며,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영체로 있었습니다. 이때의 영의 양식이 곧 생명과일입니다.

아론의 예복으로 말하면 흉패와 에봇(조끼)과 겹옷과 반포 속 옷과 관과 띠로 되어 있는데, 겹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고,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금으로 된 패를 달고, 가슴에 단 흉패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출28장 참조) 또한 회복된 에덴동산,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우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계 21:19-2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삼자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거한 에덴동산은 영의 세계요, 따라서 이들은 영체로 신령한 양식, 곧 생명과일을 먹고살았으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범죄에 떨어져 지구로 추방된 후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덩이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생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추방된 당시에는 옷도 걸치지 않고 다만 본능에 의해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이어서 네피림(장사) 시대에 와서 여호와께서 이들과 같이하게 된 것이 약 6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므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이들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든 것입니다.(창5-6장 참조)

그 후 노아 때에 와서 세상에 죄악이 늘어나 홍수로 멸한 다음, 인지가 다소 개화된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약 6백 년이 지나 모세 때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제사의 율례와 법도를 정식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율례와 법도를 세우도 미개하여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공경하여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분부대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한 제사나,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드린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법도에 맞는 공식적인 제사는 아

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사는 여호와에게 별로 영광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상당히 발달된 모세 때에 와서 여호와께서는 비로소 상세한 제사법을 선포하시고 정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을 홍수로 멸하고,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후에 처음으로 착수하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역사하시고, 드디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생축이 되게 하신 후, 불과 같은 성령을 땅에 보내어 역사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맞아 이긴자를 내세워, 제사장 아론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단 것처럼, 성도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게 하여(계7:1-3) 어린 양의 아내의 수(14만 4천)를 채우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희미하지 않으며,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에 의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출28:38) 이

말씀대로,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어 야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자격을 인정하여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서 외면하며, 따라서 마귀의 밥이 되게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옛 에덴과 죄에서 비롯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똑같이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양자가 다 아름다운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아론의 제사장의 제복처럼 역시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되어야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제사장은 레위지파에 속하고 아론의 반차에 참여하며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주의 아내가 되는 제사장은 유다지파에 속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차이가 있으나, 하늘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의 일이며, 주께서 피를 흘리신

후로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5:19)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계 19:8)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이긴자이며, 여호와와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Chapter 23.

이긴자의 보좌



지금까지 반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주께서 이긴자에게 약속하신 일곱 가지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습니다. 첫째로, 그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고, 둘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셋째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고, 넷째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고, 다섯째로, ‘흰 옷’을 주며,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여섯째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일곱째로, 주께서 앉으신 ‘보좌’에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같이 하리라.”(계3:21)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자의 사명과 책임이 어떻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긴자에게 약속한 은총과 권능은 마지막 일곱 번째에 와서 절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긴자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함께 앉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한 의자에 같이 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은 주께서 땅에 오셔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더욱 강화된 권세를 가지심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긴자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짐작이 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면 하늘의 큰 은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마련이며,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연결된 빛의 아들을 앞세워 당신의 뜻을 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영적인 위대한 건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상일도 그렇지만 건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파괴는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는 데 40년이 걸렸으며, 그나마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괴할 때에는 순식간에 쉽사리 해치웠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악령은 이를 훼방하려 듭니다. 이루기는 어렵지만

훼방하기는 쉽습니다. 때 묻은 옷을 희게 빨기는 어렵지만 희게 빨아 놓은 옷에 먹물을 끼얹기는 쉬운 것과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내리면 그만큼 마귀도 극성스럽게 가로막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달리면서 남달리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악령이 자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면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줄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튼튼히 간직하려면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언약 그대로 하늘의 만나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로운 말씀이 터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만일 그게 실제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는 일을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의 아닌 오해와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세레 요한이 주님의 길 예비자로, “내 뒤에 오실 자는, 내가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제사장보다도 더 지체 높은 집안에서 세레 요한의 몇 갑절 위풍이 당당한 분이 메시아로 나타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초라한 시골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촌뜨기가 나타나,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참람되다!”고 욕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제사만 정성껏 드리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마련인데, 네놈이 너를 거쳐야 한다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수작이냐?” 하고 공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날의 제사가 앞으로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게 마련입니다.(고전13:10)

그런데 주께서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약속한 이 보좌는 대체 어떤 보좌일까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에게 열두 보좌에 앉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긴자에게 앉히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보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주께서 이긴자에게 앉혀 준다는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 이젠 이상 중에 보여 주시기 전에는 그 생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나 주의 종들, 가령 에스겔이나 이사야,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섰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4:2-3)

주께서 이긴자에게 함께 앉히겠다고 약속하신 보좌는 이런 보좌입니다. 즉 이상 중에 보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무지갯빛의 눈부신 보좌입니다.

그 이긴자의 보좌에 대하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19:4-5)

이것은 천년세계가 지나 마귀의 세력을 박멸하고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보좌 앞에 선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는 한 장면입니다. 즉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더니,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찬송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여기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성도의 무리에 속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 목소리의 임자가 주님이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도, 24장

로도, 네 생물도, 천사도 아닌 다른 사람, 곧 이긴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긴자가 주께로부터 허락 받은 보좌에서 외친 것입니다. 이 보좌는 이긴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긴자라고 해서 반드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긴자가 된 후에도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계2:26)라는 단서가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이긴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앞선 종처럼 곁길로 들어서면 (렘11:16 참조)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요7:39 참조)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주님이 당신의 보좌에 이긴자를 앉히는 것은 앞으로 마귀와 일대 결전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13:2) 여기서 ‘그에게’란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인 용이 짐승을 자기 보좌에 앉히고, 권세를 주어 마지막 싸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계19:14) 마귀의 군대는 홍마를 타며, (계6:4) 전자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19:14) 후자는 붉은 옷을 걸치고 (계17:4)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

다.(계16:16)

천년세계란 요컨대 하늘 군대가 이 전쟁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때 마귀를 무저갱에 일단 가두었다가 천 년이 차면 마귀를 잠깐 내어놓는데, 이 기간이 마흔 두 달이며, 이때 두 증거자도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 육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가 있는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계 11:8)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그 상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출두하는 하늘의 군대가 입을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역할을 주님 대신하는 것이 곧 이긴자이며, 이를 가리켜 주께서는 당신의 보좌에 앉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Part 04.

어둠을 헤치고



24. 하늘의 신호로서의 나팔 · 25. 여호와와 섭리가 깃든 돌(石) · 26. 여
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 27. 십자가의 군병이 되자 · 28. 방언(方言)에 대
하여 · 29. 여호와와 노(怒)를 풀어드리자 · 30. 고난의 도(道)

Chapter 24.

하늘의 신호로서의 나팔



1) 예고의 나팔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땅으로 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고는, 당신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신호로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에 모이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출19:13)고 미리 지시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모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꼭대기

를 에워싼 가운데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리자 모세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산기슭에 나갔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산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만일 오랫동안 길게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모이라!’는 신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명한 10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도 여호와를 정면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안으로 영광 중에 계신 여호와를 보면 그 휘황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연기로 당신의 정체를 가리지 않으면 인간들이 쓰러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대하고 한동안 눈이 멀어버린 것으로도 우리는 그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신호로 나팔을 분 후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역사하시는 신호로도 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땅에 들어가 할 일을 지시하는 가운데, 7년마다 안식의 해를 정하고, 그 해에는 땅에 곡

식도 심지 말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며, 지난 6년 동안에 생산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를 일곱 곱절한 49년 다음 해, 곧 제 50년을 거룩한 해로 정하고, 속죄일(7월 10일)에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내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레25:9)고 하였습니다.

전쟁 때에도 이 나팔을 자주 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 나팔들을 만들어 회중(會衆)을 소집하여 진(陣)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會幕) 문 앞에 모여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릴 것이요.’”(민10:1-8)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과 싸워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었으며, 나팔을 신호로 여호와와 긴밀한 연결을 취했던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은 마귀의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담해 주시지 않으면 전멸하게 마련이었습니다.

2) 진격의 나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팔을 불 기회가 별로 없었으나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나팔을 자주 불었습니다. 모세는 주로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으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잘 뭉쳐서 외적과 싸웠으며, 모세에게 하듯이 툭 하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 12지파의 각 족장(族長)들을 가나안 광야에 보내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의 강약과 다소와 성읍(城邑)의 형편 등등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적진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말이, “그 곳 국민들은 힘이 장사이고 성읍이 견고하여 … 우리는 그들 앞에 흡사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온 회중은 저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우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가나안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고 주장하니, 온 회중이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인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고, 너를 통하여 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에게,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아뢰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민14장 참조) 우리는 여호와가 시키는 일에 불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이치에 맞게 간구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아울러 명심할 일입니다. 즉 모세가, 만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다 쓸어버리면 가나안땅에 이끌어 들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것이며,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진다고 아뢰자 이 간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이 이치에 닿는 것도 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정탐꾼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여호와를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모세는 20세 이상 되는 자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땅에 못 들어가고,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리라.”(민14:34)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권능을 주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모세의 권능을 거두면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나 하나님에게, 자기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노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구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신 3:26)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후계자를 정해 주

시기를 눈물로 간구하니,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었노라고 알려 주셨습니다.(민27:18)

한편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같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권능 하나에만 의존해 오던 모세 때와는 달리, 직접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운이 센 장정들을 뽑아 전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세를 따르면서 제사나 드리던 때와는 처지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모세 때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미처 엄두를 내지 못한 할례(割禮)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들 무할례자들을 한꺼번에 할례 산에 모아 놓고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게 한 후, 우선 여호와와 백성으로서의 자격부터 갖추도록 하였습니다.(수5: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처음으로 대적하게 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말하면 큰 돌로 된 매우 견고한 성이며, 이중벽으로 외벽(外壁)은

폭이 2m이고, 내벽(內壁)은 4m, 높이가 10m나 되어, 여간해서는 무찌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풀어 성의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옛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고 나서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수6:1-5)라고 일렀습니다. 이때의 나팔은 전투에 사용한 것으로,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 칼 한번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 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실로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생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여호와와의 편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많은 사사(士師)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므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3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습니다.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좃고, 기드온이 또 사자(使者)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좃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는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삿6:34)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점을 찍어 놓은 인물이지만, 그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한 후에 나팔을 불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제때가 되어 여호와와 신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분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하여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호응하여 그의 산하에 모여든 장정들의 수가 너무 많아 사람의 힘으로 넉넉히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를 3백 명으로 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든지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를 통하여 강자를 누르고 당신의 사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적을 무찌르면 당신의 영광은 그만큼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받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궁(自矜)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사 7:2)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산하에 모여든 장정을 3만에서 3백 명

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병력 감축입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무찔러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못사람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만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미디안을 무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예는 기드온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려가 적진을 치라.”(삿7:9)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적진 가까이 접근해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및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부하 한 명과 함께 미디안의 진에 가본즉, 적병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그들의 장막을 쳐부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였는데, 다른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꿈이라고 해몽을 하였습니다.(삿7:13-14)

기드온은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휘하 군대를 세 분대로 나눠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지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소리치라.”(삿7:17-18)고 일렀습니다. 이들 장병이 밤중에 적진 몰래 들어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쏜살같이 진격해 들어가니, 적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자기편끼리 칼날로 치고, 남은 무리들은 모두 나 살리라고 도망을 하였습니다.(삿7:18-23 참조)

이것은 구약시대의 육적인 싸움이 전개되는 이야기지만, 영적인 나팔을 불어 마귀를 소탕하는 오늘날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힘이 개입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꺼리십니다. 아무리 권능이 강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입니다. 다만 육을 죽여서, 그러니까 적을 무찔러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상대방의 영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없는 데서 일을 시작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도 이치는 같습니다. 즉 결국은 어디까지나 여호와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나는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을래요.”, “환경 정리가 끝나면 교회에 나갈게요.” 모두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평탄한 처지에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은 평탄한 예수를 믿겠다는 것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3) 경고의 나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58: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경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법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군의 손에서 찾으리라.’”(겔 33:1-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치리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지만, 순종치 않으면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

해 치리하는 동안에 이들이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외적의 손에, 예컨대 애굽이나 앗수르, 바벨론의 손에 붙여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리의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미리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팔입니다. “나팔같이 외치라.”(사58:1) 또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겔33:3)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백성들이 주의 종의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마땅히 여호와와의 책벌을 면할 길이 없으며, 또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를 택한 주님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전9:16)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주께서 당신이 택하신 종에게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지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주의 종은 나팔을 불어서 못 백성으로 하여금 경성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예비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바로

주의 종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4) 영광의 나팔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29-31)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들이기 위해 천사를 보낼 때에는 그 신호로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입니다.(마24:36) ‘우주의 창업(創業)에 동참한 주님께서 모르시다니, 대체 무슨 어마어마한 비밀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실로 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단12:7)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었을 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여,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고 일렀습니다.

또 계시록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계10:1-2) 외칠 때에 하늘에서 일곱 우렛소리가 들려오므로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계10:4)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홀로 알고 계시는 중요한 뜻이 따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외치는”(계10:2-3) 강한 천사로, 손에 든 책에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경륜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으로, 받는 자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마지막 때에 될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룬다는 세밀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면”(계10:10) 다시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독소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소가 신령한 영체에 스며들

자 그들은 눈이 밝아지는 변화를 가져 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라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요6:53) 그러니까 다른 법도는 다 지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인간들이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몸속에 있는 그 독소(毒素)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해독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제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독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받으록 하시기 때문입니다.(계21:6-7)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뜻으로,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온 바와 같이, 나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고의 나팔, 진격의 나팔, 경고의 나팔, 영광의 나팔 등등. 그러므로 이 나팔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은 적절히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를 매듭짓는 영광의 나팔은 일곱째 나팔로, 일곱째 천사가 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일곱째 나팔은 ‘힘센 천사’가 터뜨린 말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불지 못하고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 되면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계10:11)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

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15:52) 여기 말씀한 마지막 나팔이란 다름 아닌 일곱째 나팔이며, 이 나팔 소리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 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오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주의 아내 된 자격을 갖춘 자들은 홀연히 영체(靈體)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울리지 않으면, 즉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리니.”(고전 15:25) 이것은 마지막 나팔을 불어 새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의 이야기이며, 모든 원수를 짓밟기 전에는 주께서 다시 오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서로 범할 수 없는 하나의 룰(규례)입니다. 주께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란, ‘모든 원수를 발아래 두는 것’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의로운 자의 수를 채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계6:11) 좀더 상세히 말하면, 구약시대에 여호와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및 신약시대의 순교자, 그리고 천사에게서 성령의 인을 맞은 자를 합쳐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계20:4 참조)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받았다고 해서 순교라고 볼 수 없으며, 주님을 위

해 기꺼이 목숨을 던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죽음이라야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가 14만 4천에 미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나 사사, 즉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심령들과 순교자들을 합쳐서 14만 4천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은 벌써 오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인치는 천사는 혼자서 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종과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인을 친다는 것은 이미 함께 역사할 하나님의 사람이 지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곧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원수를 발아래 두는’ 정지작업을 마쳐야만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잡아 무저갱 속에 가두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계20:1-2, 4) 실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하여 침노한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선정하여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어 역사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어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한 다음, 성령으로 신약시대 2천 년을 역사해 오신 것은 요컨대 14만 4천이라는 의로운 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를 천 년 동안 가두었을 뿐, 아주 소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저갱 속에 갇힌 마귀를 다 끌어내어 모조리 소탕해야만 비로소 묵은 역사는 끝나고, 새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부는 나팔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발아래 두고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14만 4천 외에는 모두 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기 전에 두 증인이 예언하고(계11:3) 예언한 후에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 선두에서 마귀와 마지막 소탕전을 전개하며, 잠시(3년 반) 죽임을 당하였다가 승천하니, 그곳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계11:8) 이 두 증인이 굶은 베옷을 입은 것은 비통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일곱째 나팔을 불고 새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는 두 증인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계19:14)

일곱째 나팔은 실로 인류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신호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한 모든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계11:15) 여기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며 ‘불가불 왕 노릇’하던 주님

은 천국의 대권(大權)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던 24장로들, 그러니까 신구약시대의 각 12지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외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계11:17) 이때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완전히 소탕된 때이고, 주님께서 불가불 왕 노릇하시던 권좌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고전15:28)

Chapter 25.

여호와와의 섭리가 깃든 돌(石)



1) 성경에 나타난 돌의 의미

성경에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셈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할 때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어 성(城)과 대(臺)를 하늘 높이 쌓아 올리자 여호와께서 강림했습니다.(창11:1-5)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여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창12:7)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돌을 베고 잘 때 여호와께서 현몽하여 그가 누운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창28:15)고 하므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창28:22)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한 것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좇아 아들 열둘을 낳아야 할 사명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고 얼굴도 볼품이 없었으나, 동생 라헬은 얼굴이 아름다우므로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한 보수로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다음날 보니 상대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으므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했더니, 풍습을 어기고 동생을 먼저 시집보낼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외삼촌에게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은 후로 언니 레아는 생과부나 다름없이 독수공방을 하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라헬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라헬이 네 아들을 낳은 언니를 질투하여,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남편 야곱에게 투정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여호와 뜻이므로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자, 라헬은 그제야 단념하고, 여종으로 있던 빌하를 남편 야곱의 첩으로 삼아 아들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의 첩으로 삼아 아들들을 낳게 하였습니다.(창30:9) 이후에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낳았고 라헬도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본처 레아의 아들

여섯과 라헬의 두 아들, 그리고 첩들의 네 아들들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 후 야곱의 뭍으로 기르는 양떼와 외삼촌의 뭍으로 기르는
양떼를 서로 갈라놓고 상대방의 뭍을 침범하지 않는 증거로 세운
것은 돌 무더기였습니다.(창31:45)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10계명은 돌에 새겼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
라.”(출24:12)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친히 기록’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문자 그대로 손수 쓰
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리는 영’(히1:14)인 천사를 시켜
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모세와
40일 동안 영적인 교류를 하는 가운데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금과 은, 그 밖의 여러 가지 보석을
예물로 바치라고 일렀습니다.(출25:1-7)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
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 금붙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물을 드리고 그 앞
에 절을 하면서 신으로 섬기는 주책을 떨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크게 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시
자, 모세는 여호와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禍)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

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基業)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출32:12-14)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방자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으므로, 여호와와의 지시대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약 3천 명 가량 죽여 여호와와의 진노를 풀고, 다시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옵건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출32:25-33)

이것이 주의 종이요, 또한 이와 같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면서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차 없이 엄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랴? … 의로움을 입은 자라야 아느니라.” (호14:9)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주께서 나를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34:1)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원리의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10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출32:19)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10계명을 선포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부정(不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절차가 전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즉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시켜 손수 돌판을 깎아 만드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야 했으며, 저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으로 불렀으나 이번에는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고, 심지어 소나 양도 산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출34:1-3)

처음에 실패하여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모든 여건이 어려워지고 한결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 설명해 주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감람나무 역사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취진 지혜, 즉 그 깊은 사정을 아는 것이고, 다음은 신을 구분지어 소탕하고 성령을 부어 주는 것이며, 병 고치는 것쯤은 나중 은사로, 이것은 마귀도 곧잘 흉내를 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고 말씀했습니다. 육보다도 언제나 영을 앞세우는 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남달리 많은 은총을 받아 왔으며, 또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은혜 아래 불러주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헛되이 쏟아 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함은 물론, 자기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 고 했습니다. 만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자비롭게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징계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따라 잘 움직이게끔 유도하십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결정권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발목을 매어 이끌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린 경우를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

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동안에 땅 위에 남아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법석을 부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셨던 것입니다. 즉 땅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에서 계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식구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극도로 부패하였으니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설마했으나(출32:7) 막상 현장을 목격하자 40주야를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판들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출32:19) 여호와께서는 새로 돌판을 만들게 하여 다시 율법을 쓰신 다음,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 보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출34:30)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그만큼 갈라놓은 것입니다. 저들이 당신의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놓아 저들은 무난히 건너갔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굶주림을

채우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저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무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자연히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편애(偏愛)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각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그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피고 돌아온 탐정꾼들로부터 가나안땅에 장정들이 우글거리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더러웠습니다. 흥해도 갈라서 건너게 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도 못 미더웠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땅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당신이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며칠 자리를 비운 동안에 금송아지 소동을 부리는 이들을 가나안땅에 인도하였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하나님에게 이만저만한 불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동안 헛수고를 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

께서 그들을 가나안땅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가나안땅으로 인도해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가망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가불 세대교체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땅에 인도할 백성은 물론 영도자까지 아주 교체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번거로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권능으로 강물을 차단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 마른 땅 위를 건너가게 하고(수3:13-17) 이러한 여호와와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12족장들에게 일러, 각자 큰 돌로 기둥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수4:4-7)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 모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 때처럼 큰 은총을 무작정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쉽사리 잊어버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표적으로 돌기둥을 세

워 놓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치리(治理)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원주민들을 쳐 죽이고 나서 그곳을 12족장들에게 나눠주고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게 되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수 24:19-20)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받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수 24:27)

3) 한 돌의 일곱 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豫表)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속3:8-9)

이것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주님은 ‘순’과 ‘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입니다.(계5:6)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눈이 일곱이고 영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땅을 살피기에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눈과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두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無所不在)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척척 다 해 나가시고, 또 어디나 계셔서 우리의 일거일동을 일일이 살피고 계신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전능하지 못하며, 또 무소부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전능하지 못한 까닭은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즉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사람,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영음(靈音)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람(선지자나 사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상례였으며, 때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여 살피시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노아의 후손들이 성과 대(臺)를 하늘 높이 쌓아, 다시 홍수가 범람하는 경우에 죽음을 면하고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이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창11:15) 소돔과 고모라성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여호와께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보았습니다.(창 18:21)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무소부재(無所不在)하여 무슨 일이든지 몸소 살펴서 알고 계셨던들 구태여 강림하시지 않아도 무방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두루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므로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살펴 지시하거나 채찍질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신도로서의 공과(功過)는 평소에 거의 기록만하고 심판 때에 한데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흔히 교회문을 드나들면서 죄를 지어도 무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천사가 기록은 하지만 심판 때까지는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선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적에 여호와께 아뢰

어 상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계8:4-5)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천사를 시켜 돕게 하면서도,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크신 은총과 권능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격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출33:3)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솟제 하늘문을 닫아 버리고 땅에 대하여 완전히 외면하고 상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야말로 문자 그대로 암흑기이며, 이때에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줄 알 턱이 없으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교체되는 과도기, 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주님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에 이르는 430년의 공백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과 지상의 교섭이 끊겨 있으므로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훼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일곱 눈, 즉 온전한 눈이라고 해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날날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살필 필요가 있는 곳, 다시 말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살핍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출3:5)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같이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살피는 시야(視野)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야 가운데 있어야 살핌을 받고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피는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들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말을 천사가 변경시키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갈1:8)고 말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는 성도는 천사들이 보호를 하게 마련입니다.(히1:14)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여호와와의 움직임에 잘 알고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우선 말씀으로 서야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기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말씀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어 떨어져 나가는 신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언제까지나 오래 계속되지 않고 항상 우리 몸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상례이며, 한 번 받았다가 놓친 은혜는 되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은혜가 뜸해지면 자연히 심령이 메말라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튼튼히 자기 정신을 무장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연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순서이며, 또 그래야 받은 은혜를 좀처럼 쏟지 않고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일곱 눈,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몸소 경험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의(義)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요16:8) 이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향내 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과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복숭아를 드리는 일이 세상에는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는데 혼자서 ‘알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겠지’를 영어로 ‘메이 비’(may be)라고 하는데, 이런 ‘메이 비’의 신앙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시바삐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울과 다윗

사울 왕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첫째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아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야곱의 막내아들로 시작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본래 기운이 장사요, 지혜가 뛰어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기름을 부어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릇으로 쓰신 것입니다.(삼상9:16)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울의 배후에서 움직이신 여호와와의 숨은 손길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이 잘 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임금이 된 줄로 알기 쉽습니다.

기운이 장사인 사울은 자기 지파에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

한 인물이 나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하게 생각하여 왔으나, 막상 임금이 되고 보니 몇 해가 못 되어 교만하기 시작하여, 외람되어 제사장 이외에는 드리지 못하게 된 제사까지도 지낼 정도였습니다.(삼상13:9) 이때 이미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삼상13:9)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단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들어 쓰신 사람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울도 제거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후계자 다윗을 예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여호와와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백성들이 전쟁에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권능을 저버리고 억지로 하루 동안 금식령(禁食令)을 내렸습니다.(삼상14:24)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부왕(父王)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던 현장에 없어 직접 그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배가 고프고 김에 숲 속에서 꿀을 발견하여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으니 한결 기운이 나고 눈까지 더 밝아졌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백성들이 주린 창자를 움켜가며 싸우게 한 사울 왕의 처사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부왕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입에 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정들이 부왕이 금식령을 내린 사유를 이야기하였더니, 요

나단은 부왕의 부당한 처사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꿀을 좀 입에 대기만 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은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었던들 얼마나 많은 전과를 올렸겠느냐.”고 한탄하였습니다.

그 날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탈취한 양과 소를 잡아 피 있는 채 먹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임금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날로 먹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 못할 범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사울 왕은 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큰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게 하고, 소와 양을 끌어다 먹게 하되 피 묻은 것은 먹지 못하게 단속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처사였습니다. 당초에 인간의 생각으로 금식령 따위의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부터가 하나님의 권능을 외면한 처사요,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마셔 ‘불신(不信)을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마땅히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문에 붙이고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은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 못할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사울의 범죄는 사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삼상14:37) 즉 사울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도용(盜用)하여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

린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를 내렸으나, 그 후에도 사울의 편을 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습니다만, 사울이 금식령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의 피를 마시게 하는 범죄에 빠지게 한 후에는 사울의 간구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아주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시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 소와 양, 약대와 나귀까지도 모조리 죽여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삼상15:3) 이에 사울은 20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으로 쳐 들어가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도 다 죽여 버렸으나 오직 살찐 소와 기름진 어린 양만은 여호와에게 제사드릴 때 제물로 하기 위해 남겨두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좇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삼상15:10-11) 왜 후회하셨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들어 쓰신 당신의 종을 못마땅하다고 해서 금방 제거해 버리면, 여호와 자신에게 우선 불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 일어나는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이 살찐 송아지와 기름진 양을 여호와에게 제물로 드리려는 백성들의 의

견에 동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삼상15:22)라고 말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당에서, 자기 판에는 아무리 잘하노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하면 범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물로 송아지와 양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기보다도 백성들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사의 향내가 나지 않을 때,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서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찢어서 세우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신상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종은 팔자소관이라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시일진대 끝까지 그대로 움직여야지,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면, 오직 그 뜻을 준행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느냐에 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인관계(對人關係)에서 고독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울이 여러 차례 여호와에게 범죄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기로 하고, [\(삼상15:23\)](#) 사무엘에게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도록 미리 택하여 두었으니 이새에게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물론이고, 사무엘 자신도 누가 사울의 후계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니,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여덟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인 다윗을 가리키며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미 어제의 다윗이 아니었으며, 여호와와 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차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상16:14\)](#)

그리하여 사울이 심히 괴로워하므로, 이를 본 신하들도 제금을 잘 타는 사람을 물색하여 악신을 물리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때 제금을 잘 타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음악에 소질이 있는 소년으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제금을 타서 보기 좋게 왕에게서 악신을 몰아내었

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기(長技)에 따라 이와 같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 다윗을 싸움터에 내세워 적을 무찌르게 함으로써 다윗이 새 임금으로 나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때마침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과 대결하고 있었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사울과 같이 하지 않으므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어 걱정하며 두려워 떠는 판에,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자기가 한번 골리앗과 겨뤄 보겠노라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울 왕은 어이가 없어 바라보기만 하고, 사울 왕을 따라 전지에 나가 있던 다윗의 형은 주책을 떠다고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어도 여호와와의 도움으로 무난히 막았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나가 싸우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도 감히 싸우겠다고 나서서 사람이 없어 마지못해 다윗의 청을 들어, 그럼 한번 골리앗과 겨루어 보라고 허락하고, 자기 갑옷을 입히고 검을 들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몸집이 작아 갑옷이 거추장스럽기만 하였으므로, 물매(막대기)와 그 앞에 달아 메어 던질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고, 당대의 장사 골리앗과 겨루러 나갔습니다. 이 물매는 일찍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짐승을 쫓던 무기로 즐겨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승부는 보나마나 뻘하였습니다. 돌맹이 다섯 개로

갑옷과 투구로 전신을 감싸고 예리한 장검을 든 적장과 싸우겠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은 아이들 장난 같이 생각되어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으며, 양측 군사들은 저 놈이 어떻게 나가떨어지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본인 다윗으로 말하면, 겁을 집어먹기는커녕 얼굴빛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큰 소리는 그대로 적중되었으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조약돌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신을 갑옷과 투구로 감싼 골리앗의 이마에 주먹만 한 빈곳이 있었는데, 다윗이 던진 돌이 바로 이 구멍에 명중하여 골리앗은 그만 깝 소리도 못하고 쓰러져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군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극진히 아껴 자기 곁에 언제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에게는 후계자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다윗과 여간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갑옷과 검을 다윗에게 주어 싸움터에 내보냈으며, 다윗은 번번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장수로 삼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번은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서 여인들이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한다는 소리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18:7)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아직 다윗이 자기 후계자가 될 인물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므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그의 언동이며 궁중의 율레나 풍습 등을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다윗은 날이 갈수록 명성이 높아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울의 인기는 점점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여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교묘히 몸을 피해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보호하는 줄 알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자기 곁을 떠나 있게 했습니다.(삼상18:13) 그 후 또

다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 역사하여 다윗이 신변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하였습니다.(삼상20:18)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사울이 40세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여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 여호와의 노여움을 산 후로,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실로 40년 동안이나 왕의 권좌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무난히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교체할 적마다 복잡한 순서를 끈기 있게 거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린 돌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돌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사용한 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요, 다윗이 사용한 돌은 권능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서에는 각 모양으로 돌에 관한 기이한 일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돌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립니다.

5) 주님을 상징하는 돌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의 창업에 동참하신 주께서는(창1:26, 요1:3, 고전8:6)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마귀의 손에 떨어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큰 권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주셨지만, 그 권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와는 달리 주님에게 낯선 객지(客地)요, 주님은 이를테면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자신부터가 이 땅에서는 마귀의 저항을 받아 전능하신 권능에 적지 않은 제약이 가해지게 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6천 년 동안 잃었던 옛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해 많은 선지와 사사, 사도, 그 밖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토록 계속 역사하셨고, 지금도 애써 역사하시고 계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의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성(相對性)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성령과 악령, 빛과 어둠, 선과 악 등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인간을 통하여 싸우며, 이때 중간에 선 인간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써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은 마음의 갈등과 번거로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제일 뼈아프게 느낀 사람은 바울

이 아닌가 합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탄식이 그간의 소식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롬7:15-24)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계신 경지’에 이르면, 이런 괴로움은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운 끝에 드디어 이 경지에 이르러,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신도들에게 권면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바울은 이미 ‘괴로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또한 불신자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외면하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에 물을 탄 것처럼 의식(意識)상태가 희미해져, 자기가 어느 편에서 움직이든지도 분간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영체로, 매우 고약하고 간계가 뛰어나 우리는 대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마귀는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 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2)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윗이 주님을 두고 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마귀는 이미 알아차렸으므로, 주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땅바닥에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하고 주님을 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마귀가 미리 알아서는 안 될 대목

을 극히 애매모호한 상징으로 표현하거나, 아주 동떨어진 내용을 글 속에 살짝 삽입하여 가려 놓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알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은 여호와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상에 터뜨리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118:22) 즉 하찮은 돌인 듯하지만, 매우 귀한 돌이 된다는 뜻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사8:14-15) 이 돌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주님 당대까지는 마귀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뜻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표현하면 마귀가 미리 알고 훼방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화평도 얻게 되지만, 한편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이 신상(神像)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거갈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단2:34-35)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서 왕

의 꿈을 알아맞힐 때 한 말이며, 여기 ‘뜨인 돌’이란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상, 곧 땅의 임금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마귀의 눈을 가려 놓아도 마귀가 끝내 알지 못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귀가 미리 알아차리고 꾀방을 하면 하늘에서 선지자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암3:7)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예정해 둔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 자체는 변동할 수 없지만 그 예정 안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앞장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시일에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건의 변동에 따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전술상의 이와 같은 신축성(伸縮性)은 마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여호와의 움직임에 따라 마귀도 태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불의 성령 하나만으로도 마귀가 찢찢매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불의 성령쯤으로는 별로 겁을 먹지 않는 것은 이미 마귀가 전력을 훨씬 강화하여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말을 매우 흥미 있게 듣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고 탄복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성경 말씀을 잘 쪼개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그친다면 나는 하나의 성경 해설자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목자나 다를 것 없습니다. 모세가 어땠고, 바울이 어땠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여러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러분을 천년왕국에 인도할 겁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안찰을 해서 성령을 부어 줄 겁니까? 문제는 오늘 이 시점(時點)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그 목자를 통하여 참된 꿀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주님을 돌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의(義)의 법(法)을 좇았으나 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롬9:32)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의로운 행위에 의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사8:14)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엡2:8)이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실제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낮잠만 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

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아니, 믿으면 스스로 행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리킵니다.(약2:26)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위가 따르고, 행위가 따르면 믿음이 자라, 양자는 떼려고 해도 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믿음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요6:53) 이것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단적으로 지적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와 살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즉 성령을 받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롬9:27)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즉 성령을 받아 끝까지 간직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의 태생과 행색으로 보아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

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당신을 상징하는 ‘돌’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 어린 심령들이 오해를 사게 되어 떨어져 나갈까 염려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보다 기사, 이적을 행하여 당신의 위력을 과시해 보이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이적은 그때뿐이고,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무렵부터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는 이 물음에서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제자들에게는 모욕에 가까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영성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으나,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하여금 당신을 좀더 분명히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전도할 적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못사람들에게 주님을 강력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앞에 인용한 이사야

서 8장 14절을 들어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서의 주님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사28:16)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벧전2:4-5)고 하였습니다. 생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서슴지 않고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여기 ‘만나’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의미하며,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영의 양식은 일찍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 준 육의 양식과는 판이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6:48-)

그런데 이 ‘흰 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거기 기록된 새 이름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을 가리켜,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義)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이요.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히7:2-3)고 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살렘 왕이지만, 번역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도 김 서방, 박 서방 하는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륜이 쓰인 ‘흰 돌’을 이긴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돌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마귀의 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려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느 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Chapter 26.

여호와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신앙관(信仰觀)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컨대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인간이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계(靈界)로,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신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 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인 생명과일 대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창3:17) 신세가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은 하나님의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의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란 이를 테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귀가 훼방을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어 역사하신 것도 이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신약시대에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나, 다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지(人智)의 발달 정도와 땅의 여건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었으나,(욘 15:14, 25:5, 시14편, 료3:11) 신약시대에는 주의 피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료6:19)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크게 활약한 모세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다 죽어서 묻혀 있다가 주의 피권세로 무덤이 열리면서 승천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27:51)

주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6)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순교하지 않는 한 일단 음부에 가 있다가, 천년세계가 지나 주를 믿던 자는 심판을 거쳐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둘째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산다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20:4-5)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후1:22)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순교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바로 지성소에 가게 마련입니다. (계6:9-11 참조) 이것이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를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살아서 주를 맞아, 천 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아내 될 14만 4천의 성도들은 하늘의 군대(계19:13)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주와 더불어 하늘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마귀의 마지막 소탕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 뜻을 이루시는 데 제일 요긴한 존재이며, 그 밖에 나머지는 사실상 하나님에게 별로 도움은 주지 못하고 겨우 구원이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될 자격을 가진 자와 그 혼인 잔치에 초청 받는 무리를 견주어 보면 여러 모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전자는 빛나는 세마포(계19:8)를 입는데 후자는 옷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자는 14만 4천(계7:4-8)이고 후자는 무수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세 가지 권세, 곧 왕이 되고(계20:6) 제사장이 되며(히7:3) 심판할 권세(계20:4)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도 이 반열에서는 제외되었던 것입니다.(마11:11)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가 있을 지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는 천 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천 년은 물론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 말한 것으로, 주의 아내들이 더불어 왕 노릇하는 천년세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천년세계란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세계로, 다음에 닥칠 마귀와의 셋째 싸움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게 됩니다.(계11:7, 19:14-15, 20:7 참조) 주의 아내를 하늘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 6천 년 동안이나 이 하늘의 군대를 하나씩 둘씩 길러 왔던 것입니다. 이 군대의 수 14만 4천이 차야만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편에서 마귀와 대결해 싸워줄 수 있는 이 하늘의 군대를 속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호와에게는 많은 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일부와 접촉을 가져 왔습니다. 그 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도록 했으나, 실상 성령의 역사는 고금을 막론하고 극히 한정된 범위에 그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나 사사 및 사도들의 경우가 그렇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도 결코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오묘한 도를 전하였으나, 끝까지 그를 따르는 무리는 겨우 500명에 불과했습니다.(고전 15:6) 그리고 같은 성령의 역사도, 처음에 등장한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켰으나 나중에 역사한 바울은 겨우 12명 정도에 그쳤습니다.(행19:7) 영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그리고 학식으로 보아도 베드로는 바울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나타난 실적은 판이하였습니다.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는 그만큼 가로막는 역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을 쳐서 흰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혀 주는 사명을 담당한 자가 곧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긴자’이며,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가지 특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를 성경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12:12)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긴자의 권능은 바울의 유가 아닙니다. 신령한 말씀을 드러내며(고전2:10) 그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는 동시에(행19:6) 마귀가 소탕되고(막3:23 참조) 그의 입김에 의해 물이 변하여 생수가 되고(슥14:8) 시체가 아름답게 피어나며(고전15:53 참조)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등(호14:5) 여러 증거가 예언되어 있으며, 누구보다도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현재 어떤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 것입니다.

Chapter 27.

십자가의 군병이 되자



나는 언젠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은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며, 여기 필요한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에게 가장 요긴한 존재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척척해 치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성경 66권은 거짓말 투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냥 놓아두신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無)에서 유(有), 즉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위력을 소유하고 계시

지만, 태초부터 여호와께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창1:1 참조) 이것이 곧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마귀라는 적대 세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언제나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마귀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당할 수는 없지만,(수8:18, 마10:28, 요12:31, 고전2:8, 요일4:4) 결코 만만치 않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차지하고 있으며(마4:8) 공중 권세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엡2:2) 그리고 마귀의 모방 능력은 거의 여호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바로 앞에서 부린 술객(術客)들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문제에 어두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는 대학 교수들까지도, 진리와 비진리를 가리지 못하여 그릇된 교리에 현혹되어 쫓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흥 종교 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탁명환 씨가 발표한 글을 책이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읽은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약간의 영력(?)을 지니고 좀 색다른 언동을 한다고 해서 저마다 ‘내가 구세주’니, ‘정 도령’이니 하고 갖은 소리를 다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어 어리둥절할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진리가 날뛰고 진리가 오히려 맥을 못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

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진리의 무정부 상태를 구분하여 그 진부를 가려 내기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무당이나 점쟁이를 데리고 가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상종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같은 족속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손길이 그들을 안찰해 보아도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의 산 경험을 통해 알고도 남음이 있을 터이니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갖은 학대와 모략 속에서 출발하여 이만큼이라도 자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은 결코 평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태산준령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댈 데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그럴수록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도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는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게 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장하다가 핍박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시내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의 한 동굴에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진이 일어나더니(왕상19:11) 여호와께서 영음으로 엘리야를 불렀던 것입니

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몹시 상심해 있을 때 천지 이변이 생긴 예입니다마는, 이런 일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신다고 해서 결코 그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를 독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령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식량이라고는 밀가루 한 줍밖에 남지 않은 가난한 과부의 양식을 먹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던 것입니다.(왕상17:16)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고전1:27-28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순탄하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궁지에 몰려 굴속에 피신하고,(왕상19:9) 주께서도 잠시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 앞에서 몸을 피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요8:59)

성경에 보면, 말세에 한 왕이 일어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여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하였습니다.(단9:35) 즉 악령의 세력을 힘입어 여호와의 마지막 성업을 가로막는 역사를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는 여러 모로 언급되어 있는데, 일월성신(一月星辰)에 징조가 있다는 것(눅21:25)도 그 하나입니다. 오늘날 태양열을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달나라에 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와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단시일에 널리 알려져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매스컴이 발달된 때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뉴스의 발상지가 되기 쉽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기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마16:19)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진대, 앞으로 어떤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조금도 이에 굴하지 말고, 굳센 믿음 가운데 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교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더러 순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아

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복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마16:25)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나 살아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세상에서도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앞에선 굴하게 마련입니다. 춘향이가 이 도령을 위해 죽음으로써 정조를 지키려고 할 때, 아무리 악랄한 변 사또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의 아내로서 이만큼 지조를 지키면 마귀가 얼씬도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궁핍할 때에는 주님에게 애절히 매달리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어느새 믿음이 식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지가 되었던 왕좌에 올랐건, 주를 그리워하는 일편단심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뜻에 따르는 자라야 비로소 지조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를 재고 좌우를 돌아보는 동안에 어느새 믿음의 알맹이는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 복잡하게 예

수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단 참 길이라고 인정되면 번거로운 마음을 정리하고 동심(童心)으로 돌아가 순박하게 주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흔히 보면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믿음에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환경이 보다 더 안정되어 주를 더욱 열심히 공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마귀와의 싸움터에 나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 선발대로서 징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의 빛을 잘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28.

방언(方言)에 대하여



1) 방언의 유래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노아 때까지 인간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미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움막이나 토굴에서 살면서 생식(生食)을 하며 연명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먹고 자고 애기를 낳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거칠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연장이야 돌그릇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순박한 생활을 하던 그들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삼라만상이 신기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거나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 신기하고, 번개가 비치고 천둥이 울리는 것도 짐승의 습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인지가 발

달되지 못한 만큼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협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손발이 묶여 며칠씩 굶기가 일쑤요, 배탈이 나도 약 한 모금 마셔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찻느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를 좀 면케 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이런 단순한 동기에서 당신을 찾는 이들의 간구를 기특하게 여겨 가까이하시면서 보호해 주기도 했으나, 본격적으로 이들을 치리하여 당신의 뜻을 펴기 위해 역사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자를 좋아하여 죄악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외면하고, (창6:3)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신 나머지 홍수로 사람들을 멸한 후에, 의로운 노아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노아와 그 일가족, 여덟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으니,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이들의 손에 붙인 것’이 곧 그것입니다. (창9:1-3) 이때부터 짐승들도 성미가 한결 유순해져서 전과 같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삼 형제를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황인종과 흑인종 및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셈은 동양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야벳은

유럽 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의인 노아의 기도가 그대로 응해져서, (창9:26-27) 대체로 오늘날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흑인이 그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한편, 황인종은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여 예의바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 그 아들 12지파와 그 육적인 후예인 주님, 그리고 역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셈족에서 배출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피부 색깔이 각각 다르지만, 이것은 물론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셈은 동방의 온대지방으로 이동하고, 함은 남방의 열대지방으로, 야벳은 북방의 한대지방으로 흩어져 사는 동안에 주로 기후의 차이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각각 사방으로 분산하여 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온 땅의 구음(口音)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던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11:1-8)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흠어짐을 면하자.”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고 지면에서 흠어져 살게 했습니다. 땅 위에 거하는 인류의 피부 색깔이 크게 셋으로 갈리고, 말이 수백 가지로 달라진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데는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말이 달라, 몇 백 리 밖에만 나가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이들 하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게 하여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령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킬 때 그 3천 명 가운데는 멀리 떨어진 여러 이방 지역에서 모여들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놀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언을 할 능력을 주지 않았던들 전도에 큰 애로가 생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지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방언을 받으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2) 방언의 의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에게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컨대 잃었던 에덴동산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을 들어 쓰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아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어 그런 끔찍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긴자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하늘의 움직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에덴동산에 마귀가 검은 마수(魔手)를 뻗쳐 아담과 하와를 꼬여낸 후로는 세상과 인간을 마귀가 차지하고(마4:9) 공중 권세까지 잡고는(엡2:2) 하늘문을 멋대로 닫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힘이 대단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능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시지만, 마귀는 모방할 뿐 창조는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출애굽기 7장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산 체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진 후, 인간들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날로 죄악에 크게 물들어 가므로 홍수로 멸하고, 의로운 노아의 자손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루는 일꾼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여호와를 멀리하므로(창11장 참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

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법도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만 유심히 살피시며 큰 은총 가운데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 곧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경위를 안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選民)을 내세워 특별한 은총 가운데 당신의 군병을 키우려 해도 일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주님은, “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21:4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애로가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그 대적 마귀의 존재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늘의 도를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좀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

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마귀가 어느새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셨으므로 이것이 보통 은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도 남지만, 전하면 금세 호응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술에 배부를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크게 들어 쓰시는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지시를 내리시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겔3:11)고 일컫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마귀의 훼방 이외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방언입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묘하고 신령한 하늘의 가르침이라도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문명이 발달되지 못하여, 의사 전달의 수단이라야 사람이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전도에 큰 지장을 받았습시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약 150개 국가를 이루고, 450여 가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구석에서 무슨 색다른 일을 하였다 하면 몇 시간 이내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가령 월남에서 공산군이 성도(省都) 하나를 점

령했다면, 그 소식이 마스크를 타고 금방 온 세계에 뉴스로 보도됩니다. 일본쫘은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가 좁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나마 언어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권능으로 이 언어의 장벽을 헐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이 방언입니다.

3) 방언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땅에서 움직일 때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본위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주의 일을 처리하면,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듯이 보여도, 주님이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반면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걷힌 후에 사람들이 중지(衆智)를 모아 하늘 높이 성과 대를 쌓아 올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시킨’ 것은 당연한 일입

니다.(창11:1-9 참조)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치하(治下)에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여 자기 힘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한 것이 그만 여호와와 차별을 면치 못하게 된 소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만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갖은 수모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신병으로 몹시 시달리는 사람을 약 한 첩 쓰지 않고 당신의 권능으로 낮게 해주었을 때에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그런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민노라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주님의 적대자들의 언동이었지만, 한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류층에 속했던 제자들을 위시한 측근자들과 이른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곧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때와 장소와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도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당신을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로만 알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하늘의 도를 전하는 대신 그때그때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적절히 입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사렛 동네의 목수로만 알고 사사건건 책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은 제외하더라도, 소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주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제자와 측근들에게 당부했는데,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26:32)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몰래 주님을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당시에 유대의 공회원으로 있는 이른바 저명인사로서, 위신상 낮에는 남의 눈이 두려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같기는 하지만 떳떳이 만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지만, 역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영체로 계실 때, 당신을 믿는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16:17) 일찍이 여호와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당신을 외면하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말이 달라진 후로, 특히 사도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전도에 크게 장애가 되었으므로 주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은총으로서 방언하는 능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화였습니다.

그리하여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와 문도들은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적어도 자기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다 알아듣게 하여 전도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문도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하여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행2:7-11) 이들은 방언을 듣고 상대방이 주의 종임을 알고는 은혜 받게 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린다.” (속 8:23)는 스가랴 선지의 말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 방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무릇 성령은 직접 오는 경우

와 간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이고, 뒤의 경우는 제3자를 통하여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대체로 그때만 임하고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맨송맨송해지게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성령이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곧 주께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님은 당신의 큰 종 베드로를 내세워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므로,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고나 할까요? 베드로 덕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성령은 그때뿐이고 오래 담겨 있지 못하고 쉬 떠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사자가 간구하여 그 놓친 은혜를 다시 붙잡아 성령의 연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았다가는 놓치고, 놓쳤다가는 다시 받고 하는 과정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에 튼튼한 은혜줄을 잡아 성령을 좀처럼 놓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언제나 성령의 연결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히 은혜의 사슬에 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성령을 부어 줄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주의 종이란 성령을 양떼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겨우 자기 하나에게만 성령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담겨 있는 정도로는 남에게 부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불리 성령을 부어준답시고 남에게 안찰이라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령이 덮쳐 씌우기가 일쑤입니다.(행19:11-16 참조)

4) 방언의 폐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역사하실 때 언제나 그 세대의 조류를 타고 세상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귀라는 강적이 있으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1차와 2차 또는 3차와 4차 등의 예정 가운데, 1차에서 여의치 않으면 이를 거울삼아 2차에서 보완해 나가고, 3차, 4차에서 더욱 충실을 기하여 당신의 마지막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6천 년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후딱 해치우지 않으며, 또 해치울 수도 없습니다. 적대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후에, 약 2천 년 동안에 걸쳐 이 땅에 수많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역사하시다가, 독생자까지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후,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전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까지 아울러 약속하

였는데(막16:17)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돌아가신 주님을 추도하여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방 안에 강한 바람이 일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행2:1-4) 이것은 실로 창세 이후 인간이 처음으로 직접 받은 가장 복된 은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는 당시에 살고 있던 수천만의 백성들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겨우 120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즉 이들로 하여금 하늘의 큰 섭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를 택하여 이들의 입을 전도의 나팔로 삼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도를 널리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 밖의 문도들은 방언의 은사로 못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곧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이지, 구원의 은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알아듣기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런 구원의 도리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듣고 무척 신기해하면서 흥분하였습니다.(행2:5-8) 그리하여 방언을 하는 하나님의 큰 종들을 무척 부러워하게 되자, 방언

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그 은사를 받으려고 여호와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는 했으나, 워낙 그릇이 모자라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여 따따뚜따 하면서 방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듣는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사람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방언에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덕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이만저만한 불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가 바뀔수록 방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불영광이 날로 더해 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는 불가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못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 방언의 은사도 내리게 한 그가(행 19:6) 갑자기 이것을 뒤집고 방언 무용론을 전해야 할 입장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다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곡히 전하여 서서히 거두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전14:19)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불리 방언을 한답시고 이방인은커녕 자기 나

라 사람들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따따뚜따 떠들어 대면 이진 참으로 난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성령을 넉넉히 받은 자가 이 방언을 통역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우리말로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영어로 말해서 통역으로 내세운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방언을 자기 나라 사람에게 통역을 하는 것도 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적극 만류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갈망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타일렀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次序)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고전14:27-28)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방언 폐지론을 내세워 일어날 파동을 염려하여 한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완곡히 말한 이면에는 앞에서 말한 그의 난처한 사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방언이 다 정말 덕스럽고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리가 만무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이 말씀은 방언보다도 예언을 우위에 두고 권장함으로써 방언을 암암리에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객(主客)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방언이 본래의 여호와와 뜻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의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굳이 하나님에게 방언으로 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 천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고할 무슨 비밀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고전14:22)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30-40) 여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위에서 말한 그의 입장과 그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방언에 대한 긍정적(肯定的)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否定的)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자기 의사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된다.”(고전13:1)고 하여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고전13:8)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의 일각에서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성령의 은총이나 받은 줄로 착각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일 성령이 역사하는 참된 방언이라면 그 방언을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등 이방인이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나라 동포도 통역을 해야 비로소 알아듣는 방언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고전12:10) 성령을 충분히 받지 못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을 때, 그 사람보다 성령을 충분히 받는 자가 풀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방언을 거두셨는데, 믿는 자들이 방언을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할 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 영을 분간 못하면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대관절 무엇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동포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는 데 방언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줄 압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전할 때처럼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신앙의 혁명기라고 합니다. 예컨대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해지면 주께서 능력과 용기를 주어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실로 주의 지시대로 가시받길을 헤쳐 갔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면류관만 남았다.”(딤후4:7)는 말은 이를 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교하여, 가장 큰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새 역사가 120문도에게 내린 성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역사도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을 발판으로 삼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29.

여호와와의 노(怒)를 풀어드리자



오늘 우리 에덴성회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발족한 후에 네 번째로 이곳 성남시에 귀한 제단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문을 부지런히 드나들면 천당에 가려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박한 견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기독교는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을 인류에게 제시한 유일무이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소박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겪는 일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 요점만 대충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은 무익하므로 흙이나 재로 돌아가지만, 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순교자(계6:11) 이외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일단 음부에 가서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0:7 참조) 그리하여 천년세계가 지난 다음, 하늘의 군사와 마귀의 군사가 영의 세계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친 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불못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계20:12-15 참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서 주를 맞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계20:4)

나는 이 단상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과정과 관련시켜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이를 위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치리하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터뜨려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준하여 주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 입술을 당신의 기계로 삼아,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고 있는 내일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눅21:25-28)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징조가 따르고, 땅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눈길을 하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공경하여 그 섭리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미리 예고한 말을 명심해 들은 사람은 그 말이 얼마 안 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가령 나는 우리나라의 안팎의 정세에 대하여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신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귀뜸을 했으며, 그것이 성서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했습니다. 즉 오늘날 4대 강국이 한국을 에워싸고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네 짐승, 곧 네 임금의 대두되는 현상입니다.(단7:2 참조)

자고로 하나님의 큰 종이 나타나면 으레 세상이 소란하였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숨은 뜻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들이 순종하면 큰 축복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고 결길로 가면 가차 없이 징계를 하시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대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는 흔히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붙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앗수르에

게 압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도를 열심히 외치자 이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손길을 뻗었으며, (사 36:37, 40:1-2 참조) 또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압박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외쳤으나 순종치 않았으므로 축복의 손길을 거두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렘33:4-5 참조) 여호와의 큰 역사가 있을 때 한편으로는 언제나 환란의 어두운 구름이 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는 여호와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큰 종으로,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나타나면 세상이 조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조용하다면 그것은 가짜 이긴자입니다. 그리고 땅의 여건도 교통이 발달되어 세계가 어디서나 서로 이웃처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정세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아마 내 말이 수궁이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거센 입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란을 거쳐서 일어났으며, 환란의 불씨를 안고 어둠을 크게 밝히더니 차츰 꺼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의 피가 헛되이 짓밟히는 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

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나중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노하심을 풀어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분발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들끓는 니스웨 성을 쓸어버리려다가,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요3:10) 즉 하나님께서 들었던 채찍을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십자가의 군병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자고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무척 아끼십니다.(창18:24 참조) 그래서 일으키려던 환란도 그를 보아 보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나없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때입니다.

(성남성회 개회식에서)

Chapter 30.

고난의 도(道)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므로 위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지만, 장본인이 이를 마다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으므로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는 속담 그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싫다는 데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벽에 부딪치게 마련입니다.

하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위신이나 자존심 따위는 초개(草芥)같이 버리고 순수한 동심(童心)으로 돌아가서, 빈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

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빼앗기고, 오만가지 잡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입술로만 주님을 골백번 찾은들 가슴이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은혜 투정은 남보다 더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 된 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정한 그릇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은혜는 지저분한 그릇에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바쳐 여호와에게 산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주님에게 상달이 되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저에게 흠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하고 열심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의 주의력을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 덤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끝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마귀의 정체를 안다면 예수 믿는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지상은 물론(마4:9) 공중 권세까지도 잡고(엡2:2)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귀의 위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평스럽게 눈길이 자꾸 세상에 쏠

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되도록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에 몇 번 얼굴을 내놓았다가, 조금만 시험을 당하면 곧 자라 모가지처럼 쪽 들어가 숨어 버리는 그런 신앙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없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불일을 다 마치고 남는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뜻 가운데 움직여 나날이 변하고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동안 성령을 충만히 받아 잠시 주를 위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순교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내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잠깐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본래 마귀를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 예수의 ‘예’ 자(字)도 모르고 자라다가, 열여섯 살 났을 때 처음으로 교회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때부터 아주 예수에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책가방을 끼고 나서면 학교까지 10리 길을 줄곧 찬송가를 부르면서 걸어갔으며, 학교가 파하여 집에 돌아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어도 책을 들여다

불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곤 하였습니다. 잠도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곧 홀어머니와 우리 일곱 남매는 입에 풀칠을 할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을 구해 와야 할 판인데, 친척들은 손을 내밀까봐 일찌감치 거리를 멀리하고, 그렇다고 우리를 돌봐 주려는 독지가가 갑자기 나설 리도 없고 하여 나는 할 수 없이 주님에게 매달려 몰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하오리까? 살아 계신 주께서 우리 집 사정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으셨다면 언제 응답을 주실까?” 이리하여 생각은 항상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내 기도를 어찌면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매달려 간구하리라고 마음먹고, 나는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다가 깨어나 이불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고, 네 시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도 물론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한번은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환상으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나는 열심히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디 가나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다가 심부름 값으로 50원 생기면 몰래 헌금하고, 날품을 팔아 몇 푼 손에 들어오면 전도사님에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라도 사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나는 차츰 주님과 직접 간접으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나로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좋아하는 세상 재미는 시들하게 생각되어 자연히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자나 깨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져 전신을 마구 사러버리는 것 같더니, 얼마 후에는 향취가 온통 코를 찌르는 것처럼 풍기다가, 그 다음에는 생수와 이슬로 온몸을 씻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움과 기쁨을 세상의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체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나는 자연히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을 때면 잘하든 못하든 주의 종의 말이라 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을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물질로 주의 종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무척 간구하였습니다. “물질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헌금을 하고 주의 종을 받들려고 해도 물질이 없습니다.”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끝내 나한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가난에 몹시 시달려 왔습니다. “웬일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번번이 낭패만 보아야 하는가?”

하긴 세상에서 일해 나가려면 불가불 세상과 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줄곧 연결이 되니, 남들과 어울려 쓴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없는 처지고 보면, 생존 경쟁에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남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건 뒷전이고, 생각은 언제나 딴 데 가 있었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한번 마음껏 뛰기라도 해 보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리하여 나는 진퇴유곡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나는 주님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밤중까지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이불 속에서 박하사탕을 물었을 때처럼 입 속이 싸아 하고, 성령의 바람이 일면서 나는 은혜의 창파에 싸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은혜가 연결되어, 어느 장소에 가든지 주께서 항상 같이하는 가운데, 때때로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몸소 나타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진실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나

타나 보이리라.”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계신 곳에 이영수가 있고, 이영수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신을 이룬다.”는 말씀 그대로, 주와 하나가 되면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도 나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 물질을 달라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고 나를 가난 속에 놓아둔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내가 물질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더라면 세상으로 흘러 주님을 멀리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과 가까이하는 방법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하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을 찾아가서 세상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처럼, 신앙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경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너무 부유하거나 시간에 얽매이면 믿음을 지키고 키워 나가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정리하여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매달려 믿음이 몸에 깊이 배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지가 개재되므로, 귀찮고 성가시고 때로는

짜증도 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노총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 자체가 영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성과 시간을 주님에게 더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 주는 주의 심부름을 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여기에 알맞은 환경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그 속에서 주의 신이 약동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4대 욕망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욕해도 그만, 칭찬해도 그만,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런 데 구애되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태산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으레 밖으로부터 핍박과 시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려면 이런 고난의 철학도 아울러 깨달아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와 여러분이 친 박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의 예배 의식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일종의 방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반면에, 여호와와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찬송가가 흔히들 부르는 유행가는 말할 것도 없고, 명곡과도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가사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라도 그 효능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찬송가 소리를 싫어하여 훼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끔 체험할 줄 압니다. 가령 초상집에 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 처음에 목이 짹 잠기는 것도 그 하나의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는 손뼉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손뼉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시47:1)는 말씀에 따라 손뼉을 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마귀가 몹시 싫어하여 못 치도록 훼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처음 나온 분들은 박수를 치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